cartoon.korea.kr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공모기간 : 2013.10.7~11.13

공모 요강

공모대상 : 초등학생 이상(같은 연령대의 미취학자 포함) 대한민국 국민

초등부 : 캐릭터 만화 |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 웹툰·카툰·스토리만화 등 장르 구분 없음

- 초등부 :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중·고등부 : 문화융성-행복한 대한민국
- 대학·일반부 : 내가 만드는 창조경제

시상내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대상, 지도교사상) 및 각 후원단체장상

보내실 곳

- 우편(방문) : (150-869)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6층 607호(여의도동)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사무국
- e-메일 : managongmo@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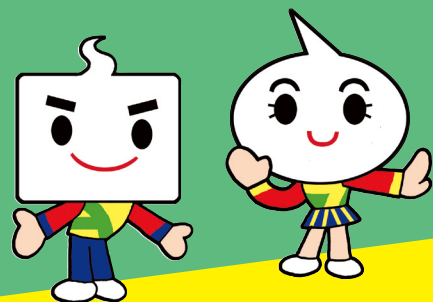
문의 :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사무국(02-3272-7726)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cartoon.korea.kr)를 참고하세요.

managongmo

managongmo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

주최

후원 (사)한국만화가협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사)한국카툰협회 · DICU(대전아마추어만화협회)

Weekly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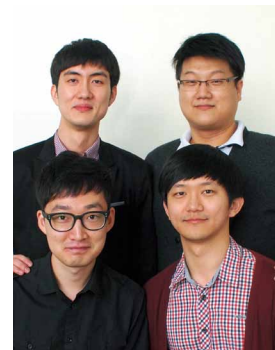
NO.228
Korea.kr/gonggam
2013.10.14

APEC · ASEAN+3/EAS 정상회의서 '세일즈 외교'

기획특집
아이디어가 '활짝'… '국민 창조경제시대' 연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변신… 세계를 향한 힘찬 '날갯짓'

REPUBLIC OF KO

창조경제, 피부로 느껴요

김권섭·김성현
유종원·나동규
대학생앱개발챌린지
최우수상 수상자
(한성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스마트 폰에 널리 쓰이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에서 수업으로만 체험하는 것을 넘어 직접 앱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안드로이드 앱 개발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3 K-Hackathon 대학생 앱 개발대회'(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팀워크와 앱 개발 실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팀은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할 때 항상 보게 되는 홈 화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2000년 초반 풍미했던 싸이월드 미니룸콘텐츠 등을 참고해 홈 화면을 내가 살고 있는 방처럼 꾸미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쁜 아이콘들을 화면에 배치해 미려하게 꾸미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앱 개발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홈 화면 앱 개발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홈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앱을 개발하는 개인 개발자가 적고 참고할 만한 자료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외국 사이트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개발 도중 생긴 어려움은 예전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한이음 IT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IT 멘토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창조경제를 피부로 느낍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기존에 있는 것들 중 생각지 못했던 조합을 떠올려 새로운 앱을 만드는 것도 창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앱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하는 오픈 소스 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앱 개발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창조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말입니다.

예선 이후에는 만든 앱을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용 후기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한 점을 꾸준히 수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앱 개발에 함께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만든 창의적인 앱을 살펴보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경제를 피부로 느낍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기존에 있는 것들 중 생각지 못했던 조합을 떠올려 새로운 앱을 만드는 것도 창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앱 소스 코드(앱의 본래 구조와 방식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를 모두 공개하는 오픈 소스 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지금까지 만든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해 누구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홈 화면 앱을 개발하려는 학생이나 초보 개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창조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말입니다. G

위클리 공감 2013.10.14 Korea.kr/gonggam | No.228 통권 329호

22

36

08

50

기획특집

톡톡 튀는 아이디어 창조경제 연다

일러스트 이은정
25

특별기획/ 제대군인

중점기획 | 새마을운동 세계화

APEC·ASEAN+3/EAS 정상회의 성과

문화주간 (10.16~20) /문화역서울284

표지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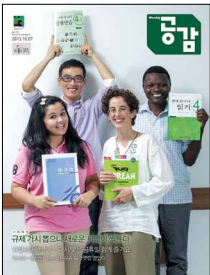
10월 9일 브루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인사말을 들으며 활짝 웃고 있다. APEC 정상회의,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 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경제·문화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견국 리더로서 아·태지역 다자 정상외교의 첫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다.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10.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21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26호 〈2014년 정부 예산안〉 기사를 읽고

김준래(서울시 강동구 명일 1동)

기사에 나온 대로만 정부 예산이 사용된다면 조만간 나라 빚을 대폭 줄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특히 각 페이지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도표와 그래프들이 기사의 백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도표들을 스크랩해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ㄴ, **답글** 내년 나라 살림은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나라 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김현석 사무관(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226호 〈201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개최 소식〉 기사를 읽고

전경욱 (경기 평택시 안중읍)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신명나는 한마당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장애인 분들이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축제의 장에 설치될 편의시설과 이동 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ㄴ, **답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개막식 때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옥외 이동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 가로변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하게 앉아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석도 마련 중입니다.

– 정재우 주무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226호 〈교육부 대입제도 확정, 전형방법도 간소화〉 기사를 읽고

이정란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아이가 2017학년도 대입의 첫 수험생이 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차분히 소홀함이 없게 준비하면 누구나 편안하게 입시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이해를 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ㄴ, **답글**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혼란 없이 입시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EBS 등과 연계해 새 대입제도를 학교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 최윤정 사무관(교육부 대입제도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규제 신경 안 쓰고 살아 보자

한때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했던 제 형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해. 늦게까지 가게 열지 마라, 간판에 무슨 색깔 넣지 마라, 기계 테스트 몇 번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품목 다루지 마라…" 그러고는 말을 잇습니다. "아니지, 하라는 것도 많긴 해. 세금 내라, 연금 내라, 영수증 내라…." 작은 가게에서 지켜야 할 규제는 참 많았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못했던 형은 "피곤하다"며 가게를 접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불필요하고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있습니다. 형에게 다시 가게를 열어보라고 해볼까요? 글 · 박상주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알림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주제 ▶초등부 : 모두가 안전한 나라 /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 / 행복한 우리집(자랑스러운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자랑거리) / 불량식품 퇴치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중 · 고등부 : 문화융성 – 행복한 대한민국 /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 / 내가 찾은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 이 사람이 문화전도사(존경하는 문화예술인)
▶대학 · 일반부 : 내가 만드는 창조경제 / 내가 만드는 직업, 창업 아이템 / 내가 찾은 최고의 일자리, 재미있는 일자리 등

시상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300만원)을 비롯 총 상금 830만원

응모일정 11월 13일까지

접수방법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11월 13일) 소인 유효
▶방문접수 : 11월 11~13일(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58, 6층 607호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사무국.
▶이메일접수 : managongmo@naver.com

문의 공모전 사무국 ☎ 02–3272–7726

현역병 모집 캠페인 song UCC 공모

병무청은 '현역병 모집 캠페인 송 함께 부르기' UCC 공모 전을 개최합니다. 캠페인 송을 따라 부르거나 편집하는 등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제한 없음
응모주제 1. 따라 부르기 UCC / 2. 영상 편집 UCC / 3. 음원 편집 UCC
시상내역 ▶최우수상(1명) : 30만원 ▶우수상(3명) : 10만원 ▶장려상(10명) : 5만원
응모일정 10월 23일까지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mma2012@hanmail.net
문의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4

〈위클리공감〉 독자의견조사 당첨자 명단(20명)

강상철(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박현진**(전남 순천시 서문로) **이서희**(경기 안성시 미양면)
김규헌(대전 서구 관저2동) **서병희**(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춘성**(서울 구로구 경인로)
김예호(강원 원주시 명륜2동) **송국화**(전북 순창군 순창읍) **이홍란**(부산 연제구 연산동)
김옥진(부산 해운대구 좌동) **송재하**(대구 수성구 공경로) **전정호**(충남 당진시 송악면)
김현숙(대구 달서구 장기동) **송지수**(서울 노원구 상계5동) **최호정**(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김형채(경기 안양시 만안구) **송지영**(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홍순철**(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박주열(서울 광진구 동일로) **안우석**(강원 강릉시 남문동)

낱말맞히기

	1		2		
			3	4	
	5	6		7	8
9		10			
11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28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2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러시아말로 근거지.
3 경기나 대회에서, 예선 등을 거쳐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선발. "우리 팀이 OO에 진출했다."
5 '어찌'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이 일을 OO 하리오."
7 일의 규모나 형태가 매우 크고 넓은 것을 가리키는 말의 어근. 경남 서북부에 위치한 군(郡) 이름이기도 하죠.
10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그는 원료로, 콩을 삶아서 만들죠.
11 일요일의 하루 전날.

세로 풀이

1 어떤 일에 대한 구상 · 고안 · 생각 · 착안. "국민의 OOOO로 꽃피우는 ☆☆경제."
2 두 개의 U자 모양 관을 맞춰 만든 금관 악기. 관을 뽑거나 당기는 장치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죠.
4 어떤 자리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세계OO기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6 전자 우편.
8 처음으로 만듦.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를 이룩함. 세로 1번 문제 ☆☆에 들어가는 말.
9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말.

〈위클리 공감〉 226호(9월30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관문 **5** 화장대 **7** 발기인 **9** 당백전 **10** 원조 **11** 소통
세로 **2.** 문화 **3** 무대 **4** 세종학당 **6** 장보기 **7** 발전소 **8** 인원

〈위클리공감〉 226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권미영(경북 울진군 기성면) **김상표**(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김현호(경기 부천시 원미구) **홍서영**(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75)
황의인(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박근혜 대통령(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0월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 정상회의장 테라스에서 가진 기념촬영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10월 7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아요디아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왼쪽).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6일 오후 발리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O Summit'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오른쪽).

"APEC 국가들 연계할 인프라 확충하자"

박 대통령 제안… '세계경제 성장엔진' 아·태지역 다자 정상외교 무대 성공적 데뷔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7일,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1개 회원국이 참가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을 주제로 열렸다.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APEC 국가를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해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아·태지역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다.

7일 열린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APEC 회원국들이 전 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이라는 선도 발언을 통해 "무역 자유화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채택된 보고르 선언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 간 상호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을 창출해 온 경험을 토대로 자유무역체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세션2에서는 APEC 회원국 간 물리적 연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APEC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APEC 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계시키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와 활용에 관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일즈 외교 나서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 ▶인프라 투자와 개발 다개년 계획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년간 약 8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APEC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대통령의 뜻은 이날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선언문에 포함된 ▶2016년까지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연장하고, 기존의 보호무역 조치를 철회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지역 경제 통합 및 역내 무역·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연계성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태평양 도서국과의 대화' 'CEO Summi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에도 참석했다.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극 내륙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뉴욕과 상하이, 부산 등 항구 도시들까지 침수 피해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APEC 차원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의 기후 변화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PEC이 우리나라 총 교역량의 66퍼센트(수출의 72퍼센트·수입의 59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인 점을 고려해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대통령은 'CEO Summit'에서는 참석한 1천여 명의 아·태지역 주요 기업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와 원칙 있는 정책 운용 의지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의 잠재력과 기대 효과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금융·교육·국경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한국의 창조경제를 향한 노력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특히 개도국들의 창조경제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서 세계 경제가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BAC와의 대화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캐나다·멕시코·페루와 양자 정상회담

정상회의 기간 중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양국 경제 협력 등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와 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에 대해 "DMZ 평화공원이 실현될 경우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캐나다와는 양국 간 FTA 협상 촉진 방안을 협의했고, 멕시코·페루와는 무역·경제협력 증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글·장원석 기자

ASEAN+3/EAS 정상회의 성과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0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 임하고 있다.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9일 열린 갈라만찬에서 베그니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2015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달성"

'한·ASEAN 특별정상회의·안보대화' 박 대통령 신설 제안에 각국 정상 화답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9일에는 브루나이로 무대를 옮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들과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ASEAN FTA 타결, 한·ASEAN 센터와 주ASEAN 대표부 설립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하면서,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SEAN 각국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양측은 내년 12월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ASEAN이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치·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평화',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번영', 사회·문화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한·ASEAN 안보 대화 신설, 한·ASEAN FTA 내실화, 한·ASEAN 비즈니스협의회(Business Council) 설립, 쌍방향 문화 교류 촉진과 한·ASEAN 센터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한·ASEAN 안보대화 신설' 제안에 회원국 정상들이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함에 따라 내년 첫 회의가 열리게 됐다. ASEAN이 역외 개별 국가와 안보대화를 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과 ASEAN이 경제와 문화 위주의 협력에서 안보·군사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양측은 또 2009년 한·ASEAN FTA 체결 이후 계속 증가해 온 한·ASEAN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310억 달러에 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2015년까지 목표치인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회원국 지지 이끌어내

박 대통령은 10일에는 제16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ASEAN 10개국 및 중국, 일본 정상들과 ASEAN+3 차원의 협력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금융·식량안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ASEAN+3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 농업, 환경, 재난관리 등 20여 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기후 변화와 재난관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 주요 국제 및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국 정상들은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가입한 이후 EAS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제고되었으며, 정치·안보·경제 등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위한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EAS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소개해 참가국 정상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개별 국가 상대 '세일즈 외교'

박 대통령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세일즈 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박 대통령은 브루나이·호주·싱가포르·미얀마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9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1984년 수교 이래 한·브루나이 양국 교역이 13배 이상 성장하고 교류·협력 범위가 건설·농수산 등 제반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볼키아 국왕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측이 브루나이의 LNG를 구입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브루나이가 올해 말 입찰을 시작하는 무아라~템부롱 해상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의 금융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싱가포르 내 마리나 베이 등 건설 수주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호주 정부의 '신콜롬보 플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이를 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신콜롬보 플랜은 호주가 자국 우수 학생들을 싱가포르·홍콩·일본 등 역동적인 아·태지역(한국은 2015년부터 포함)에 보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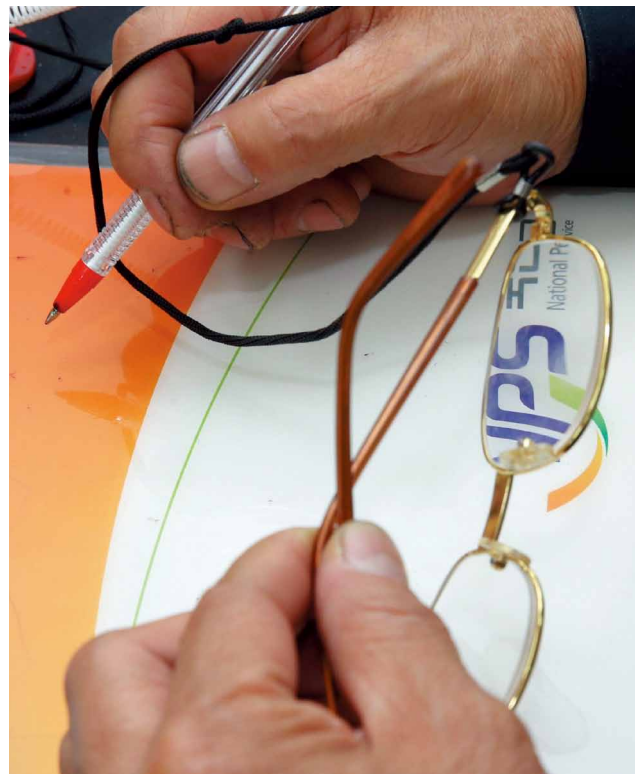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대 방안, 경협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관계 평가 및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 방안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통해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G

글·장원석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2018년까지 동결

'1가구 1연금' 체제를 '1소득자 1연금'으로 바꿔 수혜대상 확대

중앙포토

국민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민연금 서울 관악지사에서 한 신청자가 노후설계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만 있으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가구 1연금' 체제를 '1소득자 1연금' 체제로 바꿔 연금 수혜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8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번 계획은 현행 국민연금 대상자를 ▶가입자 ▶임의가입 가능자 ▶적용 제외자로 재편해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을 높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 시점에서 인상하지 않는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목표를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 박미숙(가명) 씨는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못 받는다. 사망해도 남은 가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인일 때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의 혜택이 증발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업주부 박씨도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과거 한 차례라도 보험료를 냈고 체납 기간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장애·유족연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 박씨 같은 이력이 있는 주부는 약 500만명이 있으며 향후 매년 6천명 정도가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연금 보장책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년 하반기에 300만여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업주부도 장애 및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만일 박씨가 사망하면 유족인 남편은 유족연금(50만원 가정)을 받는다. 이때 남편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은 전체 액수의 20퍼센트(10만원)만 지급된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비율이 30퍼센트(15만원)로 늘어난다. 현행보다 유족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연금 제도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소득이 없어 연금이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려를, 소득이 넉넉해 연금을 미룰 수 있는 수급 대상자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출간 활동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61세 이민주(가명) 씨는 노령연금의 절반(50퍼센트)만 받고 있다. 이씨처럼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는 원래 받을 수령액을 기준으로 61세에 50퍼센트를 받고 만 1세가 지날 때마다 10퍼센트씩 회복해 66세 이후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불만스럽다. 실제로는 재산이 없어 연금이 필요한데, 65세의 부자 노인은 일을 해도 90퍼센트의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부구성 변화

현재

구분		
가입자 (2,011만명)	소득신고자 (1,523만명)	사업장 가입자(1,133만명)
		지역 가입자(390만명)
	임의 가입자(21만명)	
	납부 예외자(467만명)	
가입의무 면제자 (1,112만명)	〈임의 가입 가능자〉 **무소득 배우자(1,101만명)**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11만명)	
적용 제외자 (162만명)	〈임의 가입 불가능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149만명) 조기노령연금 수급자(13만명)	

개선 후

구분		
가입자 (2,357만명)	소득신고자 (당연납부자) (1,523만명)	사업장 가입자(1,133만명) 〈사업장 납부자〉
		지역 가입자(390만명) 〈지역 납부자〉
	임의 가입자(21만명) 〈임의 납부자〉	
	가입 이력자 (비납부자)	납부이력 있는 무소득(813만명)
당연가입 제외자 (766만명)	임의 가입 가능자	납부이력 없는 무소득자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적용 제외자 (162만명)	임의 가입 불가능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149만명) 조기노령연금 수급자(13만명)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소득이 월평균 소득을 넘는 것에 비례해 수령액 감액 비율을 정한다. 초과 소득 구간을 100만원 단위 5개로 나눠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깎는 방식이다. 이씨처럼 소득이 적은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덜 깎는 것이다. 단, 연금을 깎는 최대 한도는 현행의 50퍼센트를 유지한다.

연령보다 소득에 따라 수령액 변화

만일 이씨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넉넉하다면 연금 수급을 미룰 수도 있다. 연금이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수령을 미루면 1년에 7.2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부분 연기 연금과 부분 조기 노령연금 도입으로 근로 유인형 급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액의 인상 시기는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실무 절차를 최대한 줄여 매년 1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보다 일찍 오른 만큼 수급자가 받는 연금 총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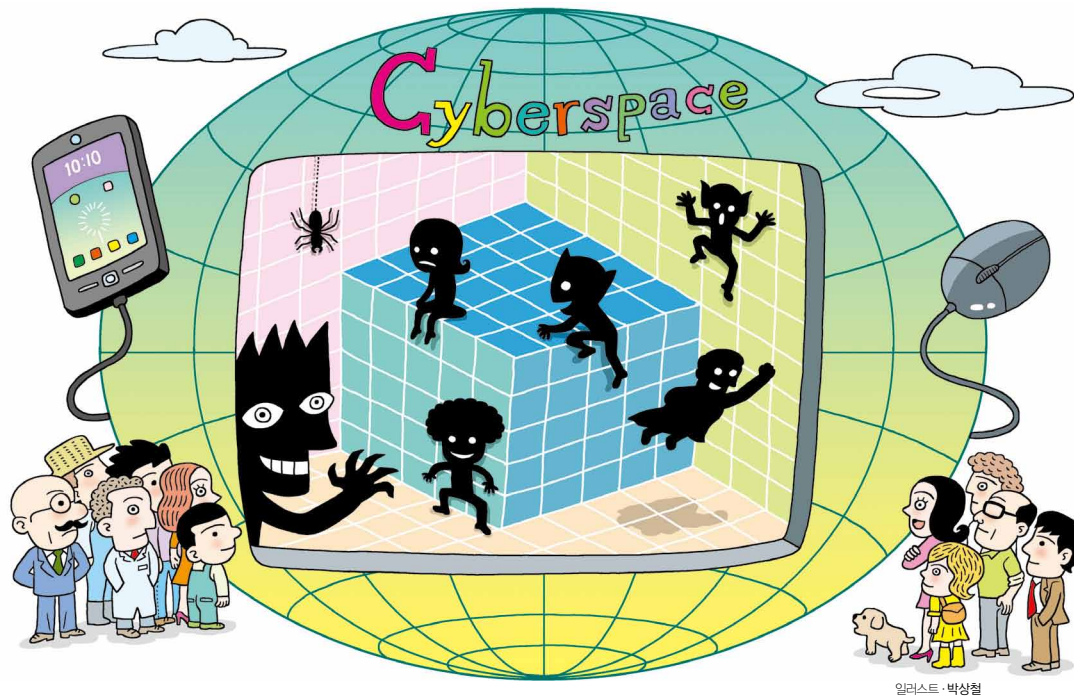
취약 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은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취약 계층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의 3분의 1~2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수혜의 사각 지대가 있어 왔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근로자들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보다 선진화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현행 비중이 낮은 해외 자산과 대체 투자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투자 다변화로 기금 수익을 오랫동안 꾸준히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G

글·박상주 기자

'사이버 공간' 국제규범 합의 가능성

10월 17~18일 코엑스서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13개국 외교장관 등 1,200여명 참석

일러스트·박상철

세계 각국이 사이버 관련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0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이다. 2011년 11월 런던에서 제1차 총회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 부다페스트를 거쳐 올해 3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총회에서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Global Prosperity through an Open and Secure Cyberspace)'이라는 주제하에 ▶경제 성장과 개발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국제 안보 ▶개도국들의 역량 강화 등 6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개도국들의 역량 강화'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추가한 의제다. 기존 유럽 국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도국들에 단순히 돈이나 하드웨어를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논의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존의 1, 2차 총회는 영미권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서울 총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이자 사이버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0여 개국의 고위급 정부 대표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 및 연구소, 학계 관계자 등 1,200여 명의 참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영국과 헝가리, 호주 등 13개국 외교 장관과 라오스, 케냐, 폴란드, 카타르 등 12개국 정보통신기술(ICT) 장관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미국 MS사·중국 화웨이 등 IT 대기업들도 참여

그동안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국제 규범 등 합의된 제도가 부재했다. 미국, 영국 등 서방측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의 입장 차가 현저해 합의문서 도출이 매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주요국과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전개한 결과 이번 서울 총회에서 결과물에 대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격 등 부정적 측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이버 공간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향후 사이버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 중이다. 서울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워크숍이 지난 5월 22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우리나라 서울, 미국 워싱턴DC에서 총 여섯 차례 진행됐다.

총회 행사장 한 편에는 국내 ICT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전시장도 설치돼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총회에는 각국의 고위급 각료 외에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화웨이 등 민간 대기업 관계자들과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국제인터넷정책협회인 인터넷 소사이어티 등의 민간 연구기관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과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

글·박미숙 기자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www.seoulcyber2013.kr

주요 장관급 참석 인사

- **외교장관(13명)** 영국,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르완다, 가나, 케냐, 태국,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 호주
- **ICT 장관(12명)** 폴란드, 코스타리카, 튀니지, 라오스, 영국, 수리남, 도미니카, 케냐, 벨리즈,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카타르
- **기타 장관(3명)** 세르비아, 영국, 체코

자료·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기획단

사이버 관련 이슈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

구분	영미권 국가	중국·러시아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입장	중립적인 공간	국가 주권이 미치는 공간
규제(개입)	민간 중심 (국가 규제 및 개입 불필요)	국가 중심 (국가 규제 및 개입 필요)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Multi-Stake Holder Model)	국가 중심의 논의 필요 (새로운 규범, 국제기구 등)

총회 프로그램 주요 일정

10월 17일(목)	
개회식	(09:30~10:10)
전체회의1. 사이버공간의 비전	(10:20~12:00)
전체회의2. 디지털 격차를 넘어 글로벌 번영으로	(13:30~15:10)
전체회의3. 국가 간 협력 강화	(15:30~17:10)
패널1. 경제성장과 발전 / 패널2. 사이버보안	(17:30~19:00)
10월 18일(금)	
패널3. 사회문화적 혜택 / 패널4.사이버범죄	(09:00~10:30)
패널5. 국제안보 / 패널6. 역량강화	(10:50~12:20)
청년포럼 합동 전체회의	(13:40~15:10)
전체회의4. 패널 요약	(15:30~17:10)
폐회식	(17:30~18:00)

자료·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기획단

2012년 5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준비단 회의'가 열렸다.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구의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처를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한국서 길을 찾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10월 14일 창립총회… 인천 송도에 사무처 유치

10월 14일 인천 송도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창립총회가 열린다. 이후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와 제6차 국제선거컨퍼런스(GEO·Global Electoral Organization)가 열린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세계 각국의 선거 기관 및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경과보고 및 창립 선언 등이 발표됐다. 또한 헌장을 채택하고, 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선출한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120여 개국의 선거 관리기관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을 포함한 330여 명이 참석한다.

국제선거컨퍼런스는 '지속 가능한 선거절차', '강화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컨퍼런스는 선거 관리자와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선거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토론과 논쟁의 기회를 갖기 위해 열린다. 1999년 캐나다에서 첫발을 내디딘 이 회의는 올해 여섯번째로 개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11년 10월 서울포럼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의 필요성을 처음 제안했다. 또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한 창설 실무단 회의를 주도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헌장(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처를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각국 선거 기관 간 지식·정보·경험 등의 공유를 통해 선진 선거관리 기법을 연구하고, 각국의 정치·선거 제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선거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 정착·발전 도모할 국제기구로 자리매김

중앙선관위는 정치 분야의 국제기구 사무처가 국내에 입주함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각국 정치 분야의 유력 인사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접촉하는 데 드는 시간과 재정적인 노력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에 민주선거 제도와 선거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같은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잘 아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관위 국제선거협력과 윤재수 과장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G

글·김혜민 기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유치 경제유발 예상액

경제유발 항목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경제유발 예상액	
	출범 초기	상주인원 300명 확대
주재원 소비지출	약 93억원	약 465억원
지역노동자 소비지출	약 18억원	약 90억원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소비지출	약 49억원	약 245억원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약 16억원	약 80억원
GDP에 미치는 효과	약 363억원	약 1,815억원
고용유발 효과	약 6억원	약 30억원
총 계	약 545억원	약 2,725억원

자료·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헌장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구성	모든 국가의 전국단위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기관은 회원 자격이 있음
조직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처로 구성
총회	2년마다 개최하며, 총회를 개최하는 선거기관의 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최하고 주재
집행이사회	각 대륙별 대표성을 반영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10개 이내 선거기관의 장 또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지명된 대표와 의장·부의장·사무총장으로 구성
의장	총회를 주최하는 선거기관의 장이 의장직 수행
부의장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선거기관의 장이 부의장직 수행
사무총장	사무처가 소재하는 국가의 선거기관의 장이 제안하고, 집행이사회가 합의하여 추천한 후 총회에서 사무총장 지명을 승인함.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단체 임원 임기·자격 제한한다

체육계 불공정 사례 재발 방지… 지배구조 개선 등 4대 개선과제 마련

일러스트·김회룡

지난 5월 29일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전아무개(47)씨는 "태권도 선수인 아들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경기에 졌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기원에서 열린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에서 심판의 부당 판정 때문에 50초 만에 7차례 경고패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6월 4일 "일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해당 경기 주심을 제명했다.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 판정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7일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 사례에 따른 개선 과제를 내놓았다.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이 앞으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6일부터 진행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기초로 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가족·친지로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임원이 장기 재직하며 생기는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임원 자녀 특별 채용 등 '도덕적 해이' ▶경기 운영 시 심판의 '공정성 부족'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각각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개선 과제는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경기운영 공정성 확보, 관리 감독 강화 등 총 네 가지다.

먼저 경기단체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임기와 자격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임원의 임기 제한이 없던 것을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단, 국제 스포츠기구 진출 필요성이 크거나 종목 육성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는 체육회 심의하에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제한이 없던 친인척 임원 임명도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동일 경기단체 내에선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치 않기로 했다.

파벌주의 방지를 위해 고심한 흔적도 보였다. 특정 학교 연고자가 전체 임원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했다. 또 국가대표 출신과 비경기인을 의무적으로 임원에 포함케 했다. 예컨대 동일 대학 출신자와 재직자는 재적 임원 수의 20퍼센트 이내, 선수위원회 추천 국가대표 출신자는 재적 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경기단체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의 이행강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출방식을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는 파벌 간 협회장 이어받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직선제 도입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단체 운영 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임원이 자의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경기단체 운영비 등 예산집행지침, 직원채용지침 등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을 감독하기로 했다. 직원채용지침의 경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단체장 등에 친인척 채용은 제한된다.

사익 추구 임원 징계사유·근거도 새로 마련

감독 결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드러난 경기단체 임원에 대해선 대한체육회가 징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대한체육회 내에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지정한다. 부진단체로 1회 지정될 경우 지원금 삭감, 2회 지정 시 단체지위 강등, 3회 지정 시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특히 3회 지정된 관리단체의 임원은 해임되고 모든 체육 관련 단체 임원으로의 진출이 금지된다. 개인 비리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임직원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수단체로 지정될 시에는 지원금을 늘리고 단체 지위를 상승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불공정 사례와 개선 과제

불공정 사례		개선 과제	
조직 사유화 및 파벌주의	➡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임원 중임 1회 허용, 회장과 8촌 이내 친족 임원 금지, 공무원법 33조 준용 강화, 특정학교 연고자 비율 제한
단체 운영 부적정	➡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부진단체 지정, 부진단체 임원 및 비리 임원 영구 퇴출
심판 불공정	➡	경기운영 공정성 확보	심판위원회 위원장 호선, 심판 처우개선, 오심 누적 심판(및 지도자) 자격 박탈, 심판 기피제
시·도경기단체 불공정	➡	관리 감독 강화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 감사권 부여, 공정체육센터 설치로 비위 제보 기능 강화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경기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힘쓴다. 중앙경기단체의 심판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고, 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는 위원 수 20퍼센트 이내 ▶경기인 출신 위원 수 50퍼센트 이상 ▶협회장과 친족관계인 자의 배제 등이다.

이와 함께 심판등록제와 심판평가제도 도입했다. 심판등록제를 통해 종목·지역·등급별로 심판 인력 풀을 관리한다. 심판평가제 도입 후에는 동료 심판과 감독, 선수를 상호 평가한 후 심판위원회 평가를 받는 '다면 평가'를 통해 심판 고과가 관리되고, 심판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도경기단체를 감독할 수 있는 중앙경기단체의 권한도 강화됐다. 시·도경기단체가 경기·심판 등 사항에 대한 규약을 제·개정할 때 시·도체육회의 단독 승인만 받게 하던 것에서 중앙경기단체의 승인도 받도록 했다. 또한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 감사권도 함께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G

글·남형도 기자

위성 24시간 감시 네트워크 갖춘다

미국 의존 탈피… 11월 몽골에 첫 설치 후 카자흐스탄 등 순차 확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내에 설치된 우주물체 전자광학감시 시스템.

지난 1월 28일, 옛 소련의 인공위성 '코스모스 1484'가 북미와 태평양 해상 일대에 추락했다. 이 위성은 소련이 1983년 7월 24일 발사한 중형 지구 관측 위성으로 수명이 다한 뒤 수십 년에 걸쳐 궤도를 낮춰오다 이날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다. 대기권에 재진입한 위성은 통상적으로 불에 타 없어지지만, 큰 위성의 경우 파편이 지상에 추락하기도 한다. 우주 잔해물이 매년 수십~수백개씩 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당시 한국천문연구원은 비상사태 대비에 들어가기도 했다.

2월 18일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배가량 되는 폭발력을 보인 '운석우'가 러시아로 떨어지면서 실제 1,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지역에 내린 운석우는 지름 15미터, 무게만 해도 7천톤으로 추정됐다.

한반도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지만 소행성 등 다양한 우주 물체를 사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가능케 할 '우주물체 전자광학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몽골 천문 및 지구물리 관측소에 첫번째 광학 관측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우주물체 전자광학감시 시스템 개발은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던 인공위성 궤도 자료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기된 저궤도 인공위성의 궤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반도 정지궤도 영역을 상시 관측해 위성 보유국으로서 기본적인 우주 정보를 획득하고 우주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특히 전자동 망원경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우주물체 광학감시 시스템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관측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어 오류가 최소화됐다는 장점을 지닌다. 관측 자료를 받아 처리하고 관측소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을 무인·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 24시간 우주를 감시한다.

관측소는 올해 11월 몽골 지역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글로벌 우주물체 전자광학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근지구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위적 우주물체를 감시할 수 있는 '우주물체 전자광학감시 시스템'을 오는 2016년까지 240억원을 들여 구축할 계획이다. 독자 개발한 50센티미터급 광시야 망원경을 외국 관측소에 설치해 우리나라 위성을 자동으로 상시 관측하는 한편, 그 외에도 2미터급 우주물체 감시망원경을 개발해 우주잔해물과 소행성 등 우주물체 감시활동을 해나갈 전망이다.

글·남형도 기자

젊음의 열정이 국악 대중화 이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12개 팀 최종 경연… 대상엔 '벼리국악단'

10월 2일 제7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한국 전통음악에 현대적 감성을 담아낸 창작곡과 역량 있는 음악인을 발굴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한 창작 국악 경연대회다. 지난 6~7월 참가작 공모에서 총 66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을 만큼 인기 높은 대회다.

이날 열린 본선 대회에서는 두 차례의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최종 경연을 펼쳤다. 총 5개 부문에서 7개 팀이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500만원이 걸린 대상은 '함양양잠가'로 참가한 '벼리국악단'에 돌아갔다. 벼리국악단은 '바쁜 일상 속의 쉼표'를 취지로 모인 청년 국악인들이 결성한 팀이다. 수상작인 '함양양잠가'는 남도 민요 특유의 전통적인 선율에 재즈피아노를 덧대 전통 민요를 접근하기 쉬운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이다.

이 외에도 전통 음악을 소재로 한 12개의 본선 진출 창작곡은 명확한 주제의식과 함께 국악풍의 노래부터 발라드·재즈·아카펠라·일렉트로니카에 이르는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한 작품들이 많았다. 전통 음악의 특징을 다르게 해석한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 젊은 음악인들의 경연이었다.

특히 젊은 국악 그룹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그리고 노는 음악으로 전환하는 문화 트렌드가 반영된 무대였다는 평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 음악 만들길 기대"

본선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울예대 한국음악과 김영동 교수는 "젊은 참가자들의 신선함이 돋보인 경연이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우리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그동안 유수의 음악인을 배출했다. 이 중에는 '고래야', '앙상블 시나위' 등 한류 융성의 주역으로 발돋움한 팀도 여럿이다. 2010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밴드 고래야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현대화한 한국 국악의 매력과 깊이를 전하는 등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있다. KBS 2TV 밴드 서바이벌 '톱밴드2' 16강 진출 등으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7~8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야외 공연예술축제 '2013 아웃 오브 도어스(Out of Doors)'에 공식 초청된 국악그룹 앙상블 시나위도 2008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출신이다. 굿 음악의 뿌리인 산조와 무속 장단을 중심으로 연극과 무용, 미디어 아트, 재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전통 음악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글·함승민(이코노미스트 기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10월 2일 제7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국악밴드 '벼리국악단'의 공연 장면.

2013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가경터미널시장의 거리예술가 꼭두광대. 일상문화 아지트엔 이와 같은 지역의 시장문화도 형상화된다.

한눈에 펼쳐진 '일상 속 문화'

부산 감천마을 골목길·인천 우각로 벽화 등 체험전시마당으로 꾸며

수원 못골시장의 상인들이 직접 만든 '이야기 간판', 부산 감천마을의 정감 있는 골목길, 인천 남구 우각로마을의 이쁜 벽화들…. 각 지역문화의 향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열리는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 현장에 가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지역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꾸민다.

문화의 달 지역순회 개최에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일상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만든 이 공간은 일반 국민의 공연·전시·모임을 소개하는 '시민에게 공간을 빌려드립니다'와 지역 공동체중심의 문화활동을 소개하는 '일상문화 아지트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일상문화 아지트는 체험전시마당과 문화정보마당으로 나뉘어 관람객들이 각 지역의 문화 코드를 공유하고, 실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문화역서울284를 찾은 사람들은 입구에서 체험전시마당을 통해 예술가들이 설치해놓은 각 지역의 문화공간을 접한 후 문화정보마당으로 이동해 각 지역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문화정보마당은 일상문화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해 누구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다.

예를 들어 체험전시마당에서 인천의 마을공동체 우각로마을을 간접 체험한 관람객들은 문화정보마당 공간에 들어서서는 마을 공동체 우각로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한평문화공간'에서는 사전 공모를 거쳐 선정된 5개 시민공연 동아리들의 작은 공연과 평소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영상을 모아 상영하는 작은상영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비영리 사단법인 '어은세(어르신이 행복한 은빛세상)'의 세대 간 상호 존중과 사랑을 담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천대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팀 '새봄'의 공연, 대학생건축연합동아리 '아키텐'의 건축 프로젝트 등이 소개될 계획이다.

체험전시마당과 문화정보마당, 한평문화공간을 이어주는 공간인 '문화골목'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는다. 공공미술학을 전공한 참여 예술가 안성희 박사가 공중전화부스 도서관을 설치해 놓고, 관람객들이 가져온 책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그래픽 디자이너 이승원 씨가 다문화 인형을 제작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관람객들은 누구나 이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안아주세요'라고 적힌 인형을 안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예술가들 협업… 국민이 문화생산자인 시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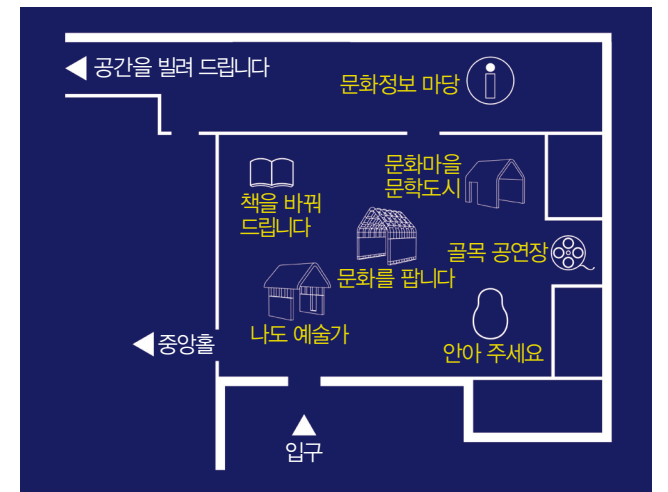
일상문화 아지트는 예술가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문화공간을 꾸몄다는 데 의의가 있다.

건축가 김종대·최재희 씨와 참여 예술가 안성희 작가, 시각 디자이너 육호준, 그래픽 디자이너 이승원, 공간 디자이너 홍의택 교수 등 평소 사회적 디자인과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져왔던 총 6명의 예술가들이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문화역서울284라는 공간을 통해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이라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2002년부터 수원 못골시장의 상인들을 만나 스토리가 있는 간판 만들기 등 지역문화 사업 '문전성시 사업'을 주도해 온 김종대 씨는 이번에 일상문화 아지트에서 못골시장 상인들의 스토리가 있는 간판을 소개했다.

건축가 최재희 씨는 광주 시화마을과 인천 우각로마을의 문화 현장을 예술적 방법으로 전달하는 설치 예술을, 공간 디자이너 홍의택 가천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제주도 서귀포 마을 유토피아로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미니어처로 보여주고, 부산 감천마을의 벽화들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

2013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부산 감천마을의 전경.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일상문화 아지트의 체험전시마당에 이 마을이 형상화될 예정이다.

'문화역서울284'의 '일상문화 아지트' 코스

자료: 2013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한편 김종대 씨는 2013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이번 일상문화 아지트를 총 기획했다.

김 국장은 "국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는 시대에서, 스스로 문화생산자가 되는 시대를 맞았다"며 "이번 문화역서울284 행사는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만든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 문화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역서울284에서는 이 밖에도 '어르신 행복한 인생2막', '이주민 문화다양성 공감대축제', '다원예술 공감창조 음악전시회' 등 소수 문화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과 '정오의 국악음악회', '한복의 날' 기념행사 등 전통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확산시키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G

글·박미숙 기자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에 걸려 있다. 이를 포함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애송시 5편을 적은 현수막이 10월 문화의 달 내내 광화문 인근 빌딩에 걸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걸린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 선보인 작품 '끝나지 않는 소설'. 도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들이 마블링 기법으로 표현된 작가들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예술작품으로 승화됐다.

가을 거리에 가득한 문화의 향

세종로엔 국민 애송시 5편 펄럭… 서울스퀘어에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에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윤동주의 '서시'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에는 젊은 작가들이 서울의 일상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미디어아트 작품도 선보였다.

문화융성시대 첫 문화의 달을 맞아 도심 곳곳의 거리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한 달간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도모하기 위해 무미건조한 도심과 거리를 문화적 공간으로 재구성, 문화거리를 조성했다.

세종문화회관에 걸린 윤동주의 '서시'를 비롯해 김소월의 '산유화'(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KT 사옥),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교보문고), 정지용의 '호수'(현대해상 사옥) 등 총 5편의 시가 광화문 일대 대형 빌딩에 걸렸다. 시 현수막은 10월 내내 도심 속에서 펄럭이며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안의 문화를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의 단상·이미지를 텍스트로 해석한 미디어아트

"창문을 열면 여러 겹 뒤에 하늘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화요일 목욕탕 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 선보인 텍스트들이다. 도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문구들은 마블링 기법으로 표현된 작가들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됐다.

작품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소설'. 서울에 대한 개인적이고 은밀한 시선을 바탕으로 한 은유적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물결처럼 번져 나가는 마블링 이미지를 배경으로 서울에 대한 단상이나 이미지를 텍스트로 표현했다.

이 작품은 지희킴(김지희), 로와정(정현석, 노윤희) 등 서울 태생의 작가들이 협업으로 만들어냈다. 로와정은 이번 작품에 참여한 소감으로 "작품 속 텍스트들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작품을 보는 우리는 이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가 힘들다"며 "일상 속 텍스트의 어색함을 통해 일상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희킴은 "마블링 기법을 통해 표현한 혼란한 도시의 모습과 익숙한 텍스트는 서울 속 도시인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은유"라며 "서울이라는 시공간 속의 다양한 층위가 빚어내는 서울의 일상 모습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10월 7일부터 선보인 작품 '끝나지 않는 소설'은 오는 31일까지 시간대마다 30분간 상영될 예정이다. G

글·박미숙 기자

사진·2013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광화문 현대해상화재 사옥에 걸린 정지용 시인의 '호수'.

공감포토 2회
다른그림찾기이벤트

공감포토가 소개하는 사진을 감상하며, 사진 속 다른 부분 3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다른그림찾기"라는 제목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20일까지 jjsmall@korea.kr 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도서문화상품권(3만원권 / 10명)을 보내드립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

'근대골목'은 근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옛 도심을 잘 보전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심재생 및 활성화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이에 지난 8월 '2013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주요 도로 9개 중 하나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감상하시려면 공감포토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photo.korea.kr

보너스 이벤트

공감포토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후 페이스북에 게재된 '2회 다른그림찾기 이벤트' 글을 공유해주세요. 총 1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공감포토 페이스북으로 연결됩니다.

톡톡 튀는 반짝 아이디어 창조경제 활짝 연다

생활 속에서 찾은 국민의 아이디어 하나 하나가 모여, 도전정신을 가진 창의 인재들의 아이디어 하나 하나가 모여,
창조경제를 꽃피우는 씨앗이 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 엔진이 되는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국민 창의성과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의 씨앗을 키워낼 창조경제타운이 열렸습니다. 이제 국민 창조경제시대입니다.

'혁신형 창업'이 경제성장 이끈다

창조경제타운 등 아이디어 구현할 온·오프라인 창업 플랫폼 속속 등장

아이디어 시현 공간인 무한상상실이 8월 28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문을 열어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 전국 6곳의 무한상상실에 이어 온라인에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 가동돼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싱크대 하수구가 굳어진 식용유 때문에 막힌 것을 발견한 주부 이가연 씨는 생각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하수구도 막히지 않게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는 2004년 우신NIT란 회사를 만들어 '식용유 정제기'를 발명, 튀김요리 전문점에 판매하고 해외수출도 하고 있다.

물기는 뚝뚝, 냄새도 심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이희자 씨도 2003년 주부창업을 해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고 냄새를 없애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내는 루펜BIF를 운영하고 있다. 경험 없는 전업주부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 힘들게 이뤄낸 성공이었다.

누구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이들처럼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제품화에 도전하고, 그 제품이 시장에서 호평받고 성공을 거두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혁신형 창업 활성화의 비결,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선진국일수록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혁신적 창업'이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창업 활성화 촉매제로 '창업 플랫폼'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창업가가 창업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직접 관리, 창업 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하기 어려워 생계형 창업에 비해 혁신형 창업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창업 플랫폼'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창업가 벤 카우프만이 만든 '쿼키(quirky)'는 대중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한 뒤 제품을 만드는 '소셜 제품개발 플랫폼'이다. 그동안 기존 멀티탭의 단점을 보완한 관절 달린 멀티탭 '피봇 파워', 목깃이 늘어나지 않는 접이식 옷걸이 '솔로' 등 히트제품들을 개발했다. 쿼키의 2013년 예상 매출은 2천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테크숍(TechShop)'은 한 달에 125달러(약 14만원)가량의 비용으로 3D 프린터 등 첨단 제조설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실이다. 테크숍을 통해 개발된 온도변화 감지 미숙아용 담요의 라이선스는 GE에 팔리기도 했다.

전 세계 200개국, 30만명의 과학기술자가 등록돼 있는 '이노센티브(InnoCentive)'는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이다.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이 17년간 고민했던 유조선 발데즈호 좌초 관련 환경오염 문제도 이노센티브를 통해 3개월 만에 해결됐다.

'킥스타터(Kickstarter)'는 영화, 음악, 공연예술, 만화,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에게 일반인의 자금을 연결시켜 주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다. 'Y콤비네이터(Y combinator)'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팀을 선별해 다양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역량을 길러주는 창업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칠레'는 세계의 벤처기업에 문호를 열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회사를 6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4만 달러와 비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칠레 젊은이들 사이에 창업 열풍을 몰고 와 201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584개의 창업기업이 배출됐다.

부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창업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첨단장비를 갖춘 시제품 제작터가 문을 열어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 1월 약 2천평방미터 규모의 시제품 제작소 '다빈치 랩'을 열었다.

'무한상상실' 등 첨단장비 갖춘 시제품 제작터도 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국민 공작소 '무한상상실'이 8월과 9월 사이 국립과천과학관을 비롯해 서울, 대전, 광주, 목포 등 5개 지역 6곳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민의 아이디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물리적 공간인 무한상상실은 3D 프린터, 레이터커팅기 등 첨단설비를 갖춘 실험공방형은 물론 아이디어 클럽형, 스토리텔링형, R&D 연계형 등 모두 4개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곳에 설치하고 20여 종으로 운영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온라인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디어 발전소',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 '창조경제란', '창조경제 사례'로 구성된 창조경제타운에는 개설 5일 만에 1천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이나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막혀 있는 사람, 창업하고 싶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야흐로 국민 누구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창조경제타운 문 열자 아이디어 5일 만에 1,000건 넘었다

국민들의 잠재된 도전 열망 분출… '공유 아이디어 공간'도 뜨거운 관심

www.creativekorea.or.kr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 지난 9월 30일 문을 연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 3일 낮 12시까지 모두 703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사업화에 도전하는 창조 아이디어 제안 메뉴에 올라온 아이디어들이다. 서비스 실시 사흘 만에 7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중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234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난 10월 9일 정오까지 등록된 아이디어는 1,275건에 달했다.

이러한 열기를 고려할 때 '창조 아이디어 제안'은 '창조경제타운'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에게 시원한 책상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부터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까지 등록된 아이디어의 종류도 다양했다.

'창조 아이디어 제안' 서비스 못지않게 '공유 아이디어 공간'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공유 아이디어 공간' 서비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집단 지성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민들이 생활 속 아이디어부터 쉽게 접하는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멘토 및 이용자들과 의견을 나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10월 3일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는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센서가 부착된 엘리베이터'에 관한 글이 등록됐다. 이 글에는 격려의 목소리를 담은 댓글, 현재 엘리베이터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묻는 댓글 등이 달려 있었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단계별로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멘토를 희망하는 전문가를 모집했다. 현재 경영·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활약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 버지니아공대 데니스 홍 교수 등도 전문가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 멘토 1,034명 확정… 다양한 혜택 주기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멘토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발전 방향을 묻는 아이디어 제안자부터 초기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특허 출원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안내를 받는 제안자까지 '멘토링'의 내용도 다양하다.

창조경제타운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의 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크게 늘었다. 서비스를 개시한 9월 30일 멘토 신청자는 모두 1,024명, 확정된 멘토는 641명이었다. 하지만 10월 3일 기준으로 1,570명의 전문가들이 멘토를 신청했으며 이들 중 1,034명이 확정돼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들과 멘토들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아이디어 제안, 댓글 등록 등 창조경제타운 활동 내용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는 정식 개시 이후 3일 동안 신규 회원 수가 4,736명에 달했다.

또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인 시범 서비스 기간 중 가입한 회원까지 합치면 10월 3일까지 모두 7,688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3일 동안 접속자는 2만4,011명으로 하루 평균 8,003명이 창조경제타운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 · 김혜민 기자

아이디어 멘토링 서비스 안내

1 아이디어 제안하기
- 아이디어 제안 분야를 선택하고 나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2 아이디어 구체화/지식재산권화 지원
-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하고 기술을 상세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독창성이 검증되면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 등을 지원합니다.

3 타당성 분석 지원
- 아이디어가 구현된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연구개발 기획,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4 연구개발 지원
- 아이디어와 연관된 기존 기술을 연계해주거나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하도록 안내합니다.
- 기업, 연구소, 대학의 인력, 장비 등 다양한 지원을 동원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창업 지원
-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 등록 절차 등을 도와줍니다.
- 창업 자금을 연계해주거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등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안내합니다.

6 시제품 제작/마케팅 지원
-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들어진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 전시회 참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제품을 널리 알리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대한민국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등록한 뒤 아이디어 제안할 수 있어요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연령 등의 제한이 있나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국민 누구든지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전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입니다.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 한 명당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개수 제한 규정이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디어 주제에 상관 없이 어떤 아이디어든지 올려도 되나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면 어떤 주제여도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아이디어와 기술의 종류, 사업화 방법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생활용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창업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연구개발, 상용화 개발 등이 요구되는 첨단 기술 아이디어의 경우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아이디어 제안'에 제안된 아이디어의 경우 상세 내용은 오직 정보보안 서약을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안전합니다. 단, '노출 제목'만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개되는 정보이므로 입력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 글을 쓰면 상세한 내용까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유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권리화를 계획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는 글쓰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창조경제타운 멘토란 무엇인가요?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멘토가 되어주고자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합니다. 멘토링 분야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구체화·기술 개발(디자인, 기술 기획·개발 지원 등), 기술평가·권리화(동향·시장 분석, 가치 평가, 지식재산권 확보·활용 지원), 자금 연계(창업 자금, 시제품 제작, 시설·운영 자금 등), 교육(창업 교육, 지식재산권 교육 등), 인프라(창업 공간, 정보시스템, 인증 등), 경영·마케팅(홍보, 세무·법률, 판로 등)으로 나눠집니다. 멘토는 자신의 경험 및 역량에 따라 여러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멘토는 사업화를 준비하는 이용자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 활동을 합니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신청한 애로 상담에 대한 답변을 하며 이 외에도 공개된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상담게시판 답변 등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멘토 본인의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발전시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멘토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등록이 됩니다. 이들 신청자 가운데 선별 과정을 거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은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멘토 신청서 1부, 사진 1장, 이력서 1부(선택), 자격확인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멘토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나요?

창조경제타운에서 활동하는 각종 멘토링 실적(문의 글에 대한 답변 실적 등)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멘토 선정 및 각종 포상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회원 가입, 멘토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실명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창조경제타운 회원 가입 및 멘토 활동을 원하는 경우엔 관리자에게 이메일(webmaster@creativekorea.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

글·김혜민 기자

단체·기관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하세요

공모전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공모전 진행 주체(기관, 기업) 자체 접수 방식에 따릅니다.
단, 창조경제타운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모전의 경우 자체 공모 접수 신청기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좌측상단 '아이디어 발전소' 클릭!
2. 신청할 공모전의 내용을 입력하신 후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자정보	
신청자	
이메일	연락처

3. 운영자가 확인 후 승인하면 해당 공모전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등록됩니다.

공모전 신청 확인 방법

1.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아이디어 공모전→공모전 홍보 신청에 접속하시면 이용자가 신청한 공모전 내역이 표시됩니다.
2. 운영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관리 상태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 신청 : 승인 전의 상태이며, 공모전 홍보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 승인 :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아이디어 공모전에 등록되었습니다.
   - 거절 : 운영자가 공모전 홍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사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절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 전문가 멘토 7명이 말하다

"혁신·시장성 갖춘 아이디어 기대"

창조경제의 실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creativekorea.or.kr)'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쇄도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는 10월9일 정오까지 1,27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상태로만 머물러 있고 상품이나 산업화로 연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때 필요한 과정이 앞서 경험한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 경험 나누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단계별로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멘토 희망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총 1,570명의 전문가가 멘토를 신청했고, 이중 1,034명이 확정돼 활동 중이다.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의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서는 창조경제타운 이용자와 멘토 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류 중이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하도록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나누어 줄 멘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창조경제타운 멘토 7명에게 그 답을 물었다.

지식서비스 **오승택**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아야 마음놓고 사업"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번째는 문화예술적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투자나 노력에 의해 구체화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술적 아이디어입니다. 이 또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구체화되면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현재 구체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또한 매우 짧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된 구체화된 아이디어도 좋지만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상상적인 아이디어도 창조경제타운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되고 권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술적 아이디어 중에서 완전한 기술은 아니지만 장차 구체화되면 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 하는데 이러한 발명이 법적인 권리로 보호받게 되면 이것이 특허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멘토링 가능 단계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개발, 기술평가 / 권리화, 자금, 교육, 인프라
멘토링 전문분야	기타
멘토링 전문분야 설명	한국발명진흥회에서 26년간 근무 화학공학박사와 지식재산권 법학박사 학위 기술거래사 자격증

정보통신 **박용호** 팬더미디어 부사장

"기술장벽 칠 수 있는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돼야"

저는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번째는 실생활에 필요한, 접근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제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조금 쉽게 사업에 접근해 그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점차 큰 사업에 도전하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는 좀 더 도전적이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통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사진 공유) 모두가 매우 간단한 초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아이디어, 수익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모델이 돼야 하고, 특허 등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경쟁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술 장벽을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멘토링 가능 단계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개발, 기술평가 / 권리화
멘토링 전문분야	정보통신
멘토링 전문분야 설명	대기업 책임 연구원 13년 근무 정보통신 분야 창업 대표이사 13년 운영 청년 기업가정신 교육 강의 풍부한 창업 기술 투자 심사 및 멘토링 경험

바이오의료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열정과 긍정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가 좋아요"

생각과 경험은 있으나 규제, 투자, 기술 등의 이유로 실용화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 또는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각과 경험은 짧지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시장보다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오길 기대합니다.

'열정'과 '긍정'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기술이나 투자 등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지원될 수 있지만, 이런 기본 조건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 멘토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단 한 번에 일방적으로 풀어내는 조언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멘토와 멘티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멘토를 함께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멘토링 가능 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개발, 기술평가 / 권리화
멘토링 전문분야	농림·수산·식품
멘토링 전문분야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건강기능식품법 및 관련 규정 재개정에 대한 업무 담당 산업부 지원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장 겸직

정보통신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발명에 그쳐"

기존의 행동이나 사업 패턴에 상당한 효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혁신이고, 이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충분한 것이 사업성입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혁신성이 높은 의견이 많이 게시되고 상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호합니다만, 그런 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 평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혁신성과 시장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절실한 필요에 의해 발견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사실상 발명에 그치기 쉽습니다.

초기 창업가들은 아이디어를 완성한 이후 적절한 자금만 투입되면 해당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신에 의해 발견돼야 하고, 기술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 발명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탐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멘토링 가능 단계	자금, 인프라
멘토링 전문분야	기타
멘토링 전문분야 설명	인터넷뱅킹, 전자지불 / 보안,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문 경력을 보유(창업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 크게 활용되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

지식서비스 **이정수** 플리토 대표

"안돼도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행동 하지 말아야"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이디어 자체에 제안자의 삶과 경험이 녹아 있고 고민과 철학이 충분히 느껴지는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가치가 커질 수 있고, 이것이 개인의 경쟁력을 성장케 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였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간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한 후 피드백을 받고 해당 피드백을 기반으로 스토리보드·샘플 제작 등을 진행해, 조언을 얻기 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안 돼도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투자업무, 창업, 해외 인큐베이팅 등 초기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점,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 미주, 런던 지역에서 활동 중인 투자자나 IT 멘토들을 소개해 좋은 아이디어가 초기 단계에서 바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멘토링 가능 단계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개발
멘토링 전문분야	정보통신
멘토링 전문분야 설명	투자유치-SK Telecom / Planet 벤처투자 / M&A 경력 4년 / 해외 인큐베이팅-아시아지역 최초 Techstars Alumni 선정

정보통신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중소기업 연계할 모바일 앱 기술 아이디어 기대"

최근 ICT 시장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기존의 ICT 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모바일 앱 기술을 중소기업 상품 및 서비스에 응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의 조건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사업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기에 최우선적으로 창의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현존하는 기술·능력 등으로 이룰 수 없다면 이는 창의성이 아닌 공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수익 창출이 제일 중요하며,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서는 한계가 있기에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멘토링 가능 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개발, 기술평가 / 권리화 경영 / 마케팅
멘토링 전문분야	정보통신
멘토링 전문분야 설명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기술동향 파악 및 시장 분석 / 경영 노하우

기계소재 **이윤빈** KISTEP 공공기술조사팀장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한 아이디어 돼야"

더운 물과 찬물을 섞어 놓으면 언제나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자연 현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특정한 법칙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수혜를 받아 완성한 첫 제품으로 빅 히트를 치고 놀라운 매출을 올린 기업이 두번째 제품에서 어려워지고 세번째 제품을 끝으로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냉정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디어와 조직, 자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화롭게 갖추어져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이고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아이디어도 나쁠 건 없겠지만, 실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구현된 제품이나 공정을 사용하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한 아이디어는 구체화를 위해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이 그 내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 구체적인 아이디어일수록 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나 역기능들을 미리 예상하고 사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G

글·박미숙 기자

멘토링 가능 단계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개발, 기술평가 / 권리화, 자금
멘토링 전문분야	환경 / 에너지
멘토링 전문분야 설명	공학박사, 열유체 및 에너지 시스템, 타당성 분석

'마음속 상상'을 현실로 만드세요

스타트업 오디션에 800여 개 아이디어… 최종 심사에서 15개 우수 아이디어 겨뤄

지난 7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오디션에 아이디어를 응모한 참가자들이 무대에 서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스타트업(Startup)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다. 당시 닷컴 회사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용어가 됐다. 소규모 신생기업이란 의미다.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룹, 혹은 프로젝트 성격의 회사를 의미한다.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다. 스타트업의 세계적 메카와 같은 곳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태동하고 있다. 구글도 여기에서 탄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오디션이 한창이다. 미국의 MIT, 영국의 옥스퍼드, 핀란드의 알토 대학 등 세계 주요 대학들이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콘테스트를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지난 7월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스타트업 오디션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열린 오디션에는 전국에서 800여 개의 아이디어가 몰렸다. 이중 최종 심사에 오른 15개의 아이디어가 우승을 놓고 겨뤘는데, 10개의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서강대 화학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위하 씨가 금상을, 한독미디어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용수 씨와 웨더스비팀을 비롯해 임우철 씨의 '빛과 굴절을 이용한 비상구 유도장치', 오문근 씨의 '카푸셔(car pusher)'가 은상을 받았다. 또 고길환 씨의 '보조 바퀴가 달린 안전 휠체어', 장세아 씨의 '청각장애인의 세상 읽기', 서우승 씨의 '티레모(신개념 스틱 티백과 인퓨저)', 정관선 씨의 '천지인 그리기 자판, 하나글', 김진현 씨의 '쇼핑에 도움이 되는 바코드기 or 애플리케이션'이 동상을 받았다.

금상 최위하 서강대 화학공학과 4년

군생활 경험서 나온 '걸림이 없는 서류세단기'

최위하 씨는 남다른 군대 경력을 갖고 있다. 해군 특수전여단인 UDT/SEAL을 지망해 단기 복무로 군대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특이한 경험이 그를 예비 창업가로 만들었다.

최 씨가 근무한 부대가 특수 부대인 만큼 기밀 서류들이 매우 많았다. 최 씨의 임무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종이 서류들을 폐기하는 일이었는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바빠서 여러 장의 종이를 넣으면 세단기 장치가 망가지기 일쑤였다.

이때 끊임없이 머리 속을 맴돌던 생각이 있었다. 여러 장의 종이를 한꺼번에 분쇄할 수 있는 서류 세단기가 그것이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학생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이 아이디어를 품고 다녔다.

그러다가 올 초 서강대 게시판에 붙어 있던 '2013 스타트업 오디션' 광고를 보게 된다. 불현듯 자신의 아이디어를 출품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침내 이 오디션에 최 씨의 아이디어인 서류세단기 '잼프리(jam-free)'가 출품된다.

권장 종이 투입량이 1~3장인 기존 제품들과 달리 이 세단기는 종이 투입 장치에 정렬부와 롤러가 설치돼 있다. 이 장치를 통해 아무리 많은 종이를 투입해도 자동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이가 한 장씩 들어가게 되면서 잼(jam) 현상을 철저히 방지했다. 최 씨는 현재 특허 출원을 마치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은상 김용수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수업을 응용한 '시각장애인용 평면 터치스크린'

김용수 씨는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KGIT)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지난 학기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한 수업을 들었다. 김 씨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시각장애인용 터치스크린을 놓고 고민을 이어갔다. 여러 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가격이 매우 비싼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최근 음성 인식을 통한 스크린도 출현했다. 그러나 주변이 시끄러울 경우 인식이 잘 안 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 씨가 의도한 것은 시각장애인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값싼 터치스크린이었다. 이를 위해 평면 터치스크린 방식을 고안해 냈다. 정상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린을 말한다.

정상인과 시각장애인 간의 차이는 시각이다. 시각의 도움 없이 키보드를 누를 수 있는 방안을 '방향'에서 찾았다. 가운데 중심점을 설정한 후 상하좌우, 그리고 각 대각선 방향으로 모두 8개의 방향 점과 연동해 움직이면 총 16개의 드래그 입력 패턴이 가능했다.

이 패턴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제작할 경우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평면 터치스크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대학원 연구 과제를 통해 떠오른 생각이 외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경우다.

은상 장현빈·송지훈·임원·김응석 웨더스비팀

창 없는 고시원 불편 없앨 '바깥 기온 알림 장치'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응석 씨는 지난 학기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혀 있는 거주 공간에 큰 불편을 느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깥 날씨를 짐작하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어떤지부터 먼저 알고 싶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깥 날씨에 따라 색상, 밝기 등이 변하는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학교에서 여러 학과 학생들이 모여 융합형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김 씨를 비롯한 4명의 학생〈사진 왼쪽부터 장현빈(성균관대 경제), 송지훈(홍익대 경영), 임원(성균관대 디자인), 김응석(성균관대 경영)〉들이 고안한 '웨더스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외부 기온에 따라 몸체 부위의 빛이 표현되는 것이다.

바깥이 더우면 소매 길이가 반소매로, 추우면 긴소매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캐릭터 모양으로 디자인이 가능하다. 색상 역시 날씨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평면적인 기상 예보를 조명으로 바꾼 경우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으로 실내 장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웨더스비 팀의 설명이다. G

글 · 이강봉(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실패 겪어도 배우는 게 있어 즐거워요"

정보올림피아드 대상 함어진·이준모·정주영 군…"편리한 세상 만들고 싶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단지 호기심을 갖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리저리 찾아보고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자 더욱 재미가 붙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서 대상을 받자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창조경제의 주역인 꿈나무 3인방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함어진 서울 당산중학교 3학년

"다른 행성에 우주선 보낼 프로그램 만드는 게 꿈"

"초등학교 때였어요. 쥬니어네이버(어린이용 네이버)에서 게임을 하는데 문득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3학년 때 우연히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 도구로 만든 동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지난 9월 제30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 당산중학교 3학년 함어진 군.

게임을 하다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생긴 함어진 군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재미를 붙였다.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함 군의 부모는 공부시간을 빼앗긴다며 처음에 반대했다. 하지만 방과 후 짬짬이 시간을 쏟으면서 이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재미를 깊이 느끼고 있었다.

특히 관심이 많았던 분야는 교육용 프로그램이었다. 수업시간에 칠판에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불편하겠다고 느꼈던 게 계기였다.

그렇게 만든 첫 작품이 '오엑스(OX) 퀴즈 프로그램' 이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퀴즈를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그동안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정보올림피아드에 출전했다. 그때 수상한 작품이 '작은별'이다. "지구에서 바라본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를 시뮬레이션(모의실험)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함 군이 만든 프로그램은 실제 수업에서 활용됐고, 교사들은 편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업 활용도가 높다는 프로그램의 장점이 좋은 점수를 받아 공모대상을 수상한 요인이 됐다.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이후 함 군의 꿈은 더 커졌다.

천문학을 좋아하는 터라 달이나 다른 행성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수없이 실패를 겪어도 "매번 배우는 게 있어서 즐겁다"며 함박웃음을 짓는 그의 표정이 밝아보였다.

이준모 천안 불당초등학교 5학년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다양한 경험 쌓고 싶어요"

이준모 군은 여느 또래들처럼 게임을 무척 좋아했다. 폭력적이고 중독성 강한 게임을 할 때면 스스로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전한 게임을 재미있게 할 수는 없을까?" 여느 때처럼 게임을 한 후 문득 들었던 이 군의 생각이 프로그램을 만든 시발점이 됐다.

4학년이 된 지난해 이 군은 교과 과목 중에서 게임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 "도형에 관한 것들을 묶어서 게임을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이 군이 컴퓨터를 즐겨하는 것을 눈여겨봤던 담임교사 박지혜 선생님이 프로그래밍,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방과 후나 휴일에도 시간을 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됐다.

그렇게 만든 작품이 정보올림피아드 대상을 받은 '다각형 나라 여행'이다. "다각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를 활용해 공간감각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에요." 다각형 나라 여행은 도형 찾기, 선·점 대칭 원리 파악하기, 다각형 조각 맞추기 등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수학 교과서에서 기피하기 쉬운 다각형에 대한 연습을 게임으로 즐기면서 자연스레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군은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재능도 많다. 지난해엔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 영재에 뽑히기도 했다. "프로그래머, 피아니스트, 과학자, 자동차 디자이너 등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만약 프로그래머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정주영 대구 화원고등학교 2학년

"꾸준히 창의적 작품 만들다 보니 좋은 결과 얻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삼촌의 소개로 소프트웨어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마음껏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더군요. 자연스레 관심이 커졌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주영 군은 차근차근 꿈을 키워왔다. 정 군이 재능을 가꾸고 발전시킨 방식은 '경쟁'이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권유로 정보올림피아드에 처음 출전했다.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참가해 왔다.

첫 도전은 여의치 않았지만 대회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꾸준히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은 보상으로 돌아왔다. 2011년 동상, 2012년 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불후의 플랜테이션'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매년 발전시켜온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수상한 '불후의 플랜테이션'은 농업 경영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농업 경영을 실제로 실험하기엔 많은 시간과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농작물 지식, 경영 전략 등을 재미와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죠."

정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하는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색다르게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G

글·남형도 기자

글로벌 벤처 창업으로 일자리 만든다

우수 아이디어 2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 지원…사업화·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도와

창조경제를 꽃피울 발판을 마련할 '글로벌 벤처 창업 대장정'이 시작됐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역량을 가진 벤처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글로벌 창업 20개 팀과 창업보육 전문 3개 기관, 창업교육 2개 기관 등에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기업에 자금, 네트워크는 물론 미래 글로벌 창업기업가를 키우기 위한 교육도 함께 마련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월 16일 서울 상암동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에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벤처 창업의 대장정을 알리는 발대식이 개최됐다.

지난해 9월 설립된 하이코어(HyCore)는 전기 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모터를 개발했다. 고가인 고사양 모터를 대체해 저사양인 2중 모터를 활용해 성능을 개선한 것이 핵심 기술이다. 하이코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해 20개 팀 중 하나로 선발됐다. 독보적인 기술과 해외 시장 분석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발 후 초기 창업자금 3천만원을 지원받은 하이코어는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중간 발표를 준비 중이다. 발표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될 경우 7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월까지 하이코어 같은 역량 있는 창업팀들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케 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글로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고,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미 하이코어를 포함한 글로벌 창업팀 20곳의 선발을 마쳤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중 하나다.

글로벌 벤처 창업 대장정의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글로벌 창업팀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글로벌 창업교육이 그것이다.

글로벌 창업팀 지원은 선발한 2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벤처 창업 보육과 투자 연계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3개 기관을 선발해 10개 이상 벤처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글로벌 창업교육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의 글로벌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징적인 점은 지원 방식을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창업 지원의 경우 선진국 시장과 첨단기술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였다. 이번 사업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시장, 적정 기술 등 지원 대상을 다양화했다. 그 결과 캄보디아 등 오지에 유익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과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해충 퇴치 장치 등 저개발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을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로 구성된 5개 팀을 선발했다. 글로벌 창업 지원 취지를 살린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창업팀 이정욱 책임은 "해외 거주 국민의 경우 총 51개 팀이 지원해 5개 팀을 선발했다"면서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선발됐던 고산 씨의 보급형 3D 프린터 아이템 등 해외 유수 대학과 글로벌 기업 출신의 우수 팀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은 "선발된 20개 팀도 주로 해외시장 분석을 잘한 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20개 글로벌 창업팀은 초기 창업 자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중간 발표를 통해 최우수팀 1개 팀은 7천만원, 우수팀 2개 팀은 3천만원, 나머지 1개 팀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2월 12일 최종 발표회를 통해 상금을 받고 벤처캐피털의 투자 유치 기회를 얻게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는 선발부터 보육까지 해외 기관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창업팀 지원과 구분된다. 3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창업팀을 집중 보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벤처스퀘어, 글로벌 창업네트워크, 알제이커뮤니케이션즈 등 3개 기관을 선발해 각 5억원씩을 지원한다. 선발된 3개 기관은 해외의 액셀러레이터와 창업 기업을 발굴한 후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 협력 통해 창업팀 보육기관·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글로벌 창업기업가를 미리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강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운영 기관으로 선발돼 지원받았다. 서강대학교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협력해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양대학교는 세계적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기관인 카우프만재단 및 뉴욕공과대학교와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 시간은 국내 60시간, 해외 40시간 등 총 100시간이다.

글로벌 벤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기대를 모은다. 이정욱 책임은 "교육 사업이든 액셀러레이터 사업이든 중요한 것은 해외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자체가 가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실업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남형도 기자

2013년 글로벌 창업지원 공모전 심사 과정

(단위 : 팀)

공모 분야	접수 과제	비중 (%)	1차 서류 평가 결과(최종선발의 약 4배수)	2차 서류 평가 결과(최종선발의 약 2배수)	최종선정 과제(안)
① 해외 거주 국민의 현지 창업	51	19	19	12	5
② 개도국 등 해외 파견자 창업	28	11	8	4	2
③ 적정기술 기반 소셜벤처 창업	23	9	8	4	2
④ 기타(글로벌 창업 일반)	164	61	49	28	11
합 계	266	100	84	48	20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맞춤형 일자리 命 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 안정적 사회복귀는 안보와 직결… 2017년까지 5만개 일자리 마련

명예로운 보훈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란 국정 기조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근 5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중·장기 복무자들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제대군인들의 안정적 사회 복귀는 군 사기는 물론 국가 안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제공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대군인 생활공방체험 행사다. 제대군인들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전국 6곳에 설치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내년에는 7곳으로 늘어난다.

결혼한 가장이던 안재영(35·강원도 원주) 씨는 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8년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행정 인턴, 중소기업 근무 등을 거쳐 항공정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안씨는 항공 관련 경력을 쌓기 위해 2010년 항공 관련 회사에 취직했다. 코피가 나도록 일과 공부를 병행해 2012년 육군 항공 기체정비 군무원시험에 합격, 현재 육군 항공정비사로 일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양병관(36) 씨는 6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7년 전역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 등을 하다 2010년 7월 PC방을 창업한 양씨는 고객 불만 해결, 건물주와의 갈등 등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안정적으로 PC방을 운영한 덕에 지난 5월 아파트를 구입, 월룸 생활을 면했다.

비록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지만 전역 후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던 안씨와 양씨는 제대군인 주간(10월 8~14일)을 기념해 지난 10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에서 성공수기 우수자로 상을 받았다.

안씨, 양씨와 같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우리나라 남성 평균 취업률보다 낮아 전역 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2.6퍼센트로, 이는 우리나라 남성 평균 취업률 69.8퍼센트보다 낮은 수치다.

국가보훈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4.3세이며 30~40대가 52.4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는 생애주기 측면에서 자녀 학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여서, 전역자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남성 취업률과 비교해 제대군인 취업률은 최근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남성 고용률이 ▶2010년 70.2퍼센트 ▶2011년 69.8퍼센트 ▶2012년 69.8퍼센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대군인 고용률은 ▶2010년 57.8퍼센트 ▶2011년 55.9퍼센트 ▶2012년 52.6퍼센트로 2~3퍼센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범부처 협의체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 취업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으며, 5월 28일 평화로운 통일 기반 구축을 이루기 위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 '명예로운 보훈'을 확정하고, 그 핵심 업무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방위산업체, 군, 사회적일자리 등에서 일자리를 확대해 오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5만명(누적)의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계획'과 연계, 군내의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을 통해 제대군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대군인의 '우선고용 의무비율 제도'를 확대하며, 민간기업체의 제대군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대군인 행복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제대군인 행복 프로그램'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현장 실습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제대군인 행복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올해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56개 업체이며, 누계로는 모두 115개 기업에 이른다.

공공 분야에서의 사회적일자리 확대, 제대군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해외 취업직종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취업 확대를 모색 중인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제대군인 귀농·귀촌 지원 협력 방안도 수립했다.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와 함께 제대군인 귀농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대군인과 그 가족 대상 귀농·귀촌체험 프로그램을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고, 제대군인 특화 과정 및 체험캠프 정례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연간 신규 일자리 목표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67	4,877	5,687	6,452	8,426
군 관련	710	1,290	1,850	2,400	4,278
행복일자리	2,317	2,937	3,177	3,382	3,458
사회적일자리 및 창업	640	650	660	670	690

8월엔 제대군인 귀농·귀촌 지원 협력 방안도 수립

현재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의 중심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도 내년 7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 서울, 경기 북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모두 7곳으로 늘어난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1 대 1 맞춤식 취·창업 컨설팅을 비롯해 취업에 필요한 전직 교육 및 직업 훈련, 소자본 창업교육, 대학전문기관 위탁 교육, 직업훈련 바우처, 사이버 교육 등 교육 훈련은 물론 제대군인 가족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강윤진 제대군인정책과장은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지원은 군인들이 마음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우수 인력의 군 유입을 가져와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또한 군에서 체득한 리더십, 근면·성실성, 에너지와 추진력, 책임감 등을 가진 우수 인적 자원의 사회적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눈높이 낮추고 목표를 조준하라”

4년 방황 끝 ‘마이웨이’…“먼길을 돌아 왔습니다”

전민규 기자

김영무 부장은 제대 후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전역에 앞서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업무를 보완하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하는 직업입니다. 경비 관련 회사들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어야 운영할 수 있어요.”

한국보안컨설팅의 김영무(40) 관리부장을 만났다. 1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2009년 대위로 전역한 그는 지난 4월 입사했다.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한국보안컨설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7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비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특수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 업체의 경비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전수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설 경비지도사로 나뉜다.

김 부장은 지난해 초 두 달간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경비지도사 시험공부를 하고 한 번에 2차 시험을 통과,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7년 이상 경력의 군인·경찰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꼽아보니 2009년 전역에서 취업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전역한 뒤 1년가량 이민을 준비하며 자동차 정비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자국 실업민이 급증하니 이민을 안 받아주는 상황이 됐지요.”

이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 퇴직금만 털어넣고 2년 만에 접었다고 했다.

“혼자 준비했는데, 틈새 시장으로 생각한 것이 불교 용품이었어요. 틈새 시장이 맞긴 맞는데, 수요층이 한정되다 보니 찾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먼 길을 돌아 결국 12년간의 군 경력을 활용하여 경비지도사의 길을 찾은 김 부장은 아직 미혼이다. 미혼이었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고민과 방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그는 지금 전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역 후 목표를 가능하면 빨리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솔직히 말해 전역 전에 준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전역이란 어느 날 군대에서 쫓겨나듯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급이 계속 될지 힘들지 본인이 알기에 진급이 어려울 것 같으면 보통 전역을 준비합니다. 그때 얼마나 준비를 하고 나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만 27회… “지속적 관심에 감사”

그가 집에서 가까운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게 2012년 초부터라고 했다.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적성 검사, 각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뭘 해야 할지 뚜렷한 목표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상담한 기록이 27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는 “저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취업과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 주셔서 전화 받기에도 바쁠 정도였다”며 “언젠가 담당자를 모시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다”고 했다.

김 부장은 예비 전역자를 위한 두번째 충고로 눈높이를 낮출 것을 강조했다.

“사회에 나가면 뭘 못하겠는가 하는 막연한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내 레벨에 맞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저런 일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 ‘풍선’을 터뜨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란 영리추구 목적을 갖고 거기에 도움 되는 사람을 찾는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군에서 나와 취업을 하려고 보니, 군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간혹 군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었는데, 중동지역 경호업체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특전사 같은 특수병과 출신을 찾더라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만, 고졸자만 뽑는 역차별도 당해 봤다고 한다. 대위로 전역했으나 소령 진급 심사 중 전역해 ‘예비역 소령’으로 병역이 기재되는 점은 자신이 눈높이를 낮춰도 남들이 믿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더라고 했다.

먼 길을 돌아온 지금, 경비지도사 업무가 군 경력과 직결되진 않지만 유사한 분위기가 업무 수행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찰과도 업무 협조를 해야 하고, 낯설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군에서 실탄 만지던 경험이 있으니 가스총, 전기 충격기 같은 경호 장비 만지는 것도 익숙하고요.”

최근 아파트와 공장 같은 시설 경비, 금융권 등의 호송 경비,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신변 보호, 댐이나 발전시설 등에 대한 특수 경비 등 경비 용역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서울시에 등록된 경비용역 회사만 1,5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경비 관련 시장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이제 만으로 마흔, 청년과 장년을 가르는 고비에 선 그는 아직도 꿈을 꾼다. 언젠가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다. 시골 출신? 아니다. 김 부장 고향은 서울이다.

“농촌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젊으니까, 돈 벌어서 귀농·귀촌도 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자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그는 조국에 대한 복무를 마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대 군인의 한 명이었다. G 글·박경아 기자

군생활 10년간 사회진출 꾸준히 준비

자격증 취득·경영 마인드 배운 뒤 무에타이 전문체육관 세워 흑자경영

지미연 기자

강덕화 관장은 군 복무 중 세운 생활계획에 따라 취미로 배운 무에타이 체육관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골든메인 멀티짐'이란 체육관 로고와 한옥 느낌의 차분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체육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운동복을 입은 강덕화(33) 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강 관장은 10년간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다 2011년 10월 전역했다. 군 생활 중 취미로 시작한 무술을 평생 업으로 삼아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무에타이 전문 체육관을 열었다.

그가 건네준 명함에 적힌 직함은 관장이 아닌 '오너(owner)'였다.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넘어선 '경영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흔히 전직이나 퇴직을 앞둔 이들은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창업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에 대해 강 관장은 "취미를 업으로 삼으려면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과 수련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이라기보다 단지 먼저 이 길로 왔다는 정도로 봐 달라"고 했으나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배어 나왔다.

강 관장은 역사학자나 작가가 되고 싶었으나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 반대에 부딪치면서 대학 대신 군대를 택했다.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우연찮게 직업 군인의 길이 열렸고, 군 위탁교육을 통해 대학에서 심리학·상담학 등을 공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평생 업으로 삼고 싶은 태국 전통무술 무에타이를 만났다.

부사관으로 첫발을 내디디던 날 강 관장은 군대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 10가지를 차례로 적어내려 갔다. 그의 첫번째 버킷리스트였다. 강 관장은 "그 중 해외 파병만 빼고 모두 이루어졌다. 군 생활을 10년만 한다는 것도 리스트 다섯번째에 있었다"며 웃었다.

군 복무 기간을 정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제대 이후 무엇을 할지, 그리고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막연하게나마 운동을 좋아하니 월급을 모아 체육관을 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군 생활 중에 술·담배를 안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도 따지 않았다. 차를 구입하면 저축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였다.

강 관장의 초기 군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느냐"부터 시작해 말들이 많았다. 목표가 확실했던 그는 개의치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저 친구는 원래 저래"라며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렇다고 창업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강 관장은 "군인은 매월 급여가 나오지만 사업은 언제부터 수입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그는 무에타이를 접하게 되면서 창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씩 덜 수 있었다. 군 인근 체육관에서 무에타이 국가대표였던 정은천 관장(현 대한킥복싱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을 만난 것이다. 강 관장은 무에타이가 거친 운동이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해 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운동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무에타이에 푹 빠진 그는 퇴근 후 체육관으로 달려가 운동에 매진했다.

제대군인센터서 사업계획서 작성·상권 분석 등 배워

무에타이로 체육관을 차리자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매월 휴가 기간을 활용해 연수를 받는 등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 결과, 2011년 10월 전역 직전 자신의 이름으로 체육관을 개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전역 후 그는 체육관 운영 경험을 할 기회를 찾았고, 그런 와중에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교회 스포츠센터에서 자문을 구해 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무에타이와 킥복싱 장비를 구비하고 가르치며 체육관 운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는 갖췄으나 정작 체육관을 어디에 개관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찾은 곳이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다. 그곳에서 강 관장은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과 유동 인구 분석 방법 등을 배웠다. 컨설팅을 통해 그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조언도 들었다.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 스승인 정은천 관장, 우리나라의 유명 체육관 관장, 운동 지도자들을 찾아 다니기도 했다.

창업 자금은 총 1억5천만원. 거금이지만 강 관장이 대출 없이 마련한 자금이었다. 문을 연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부터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운영도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 비결에 대해 묻자 그는 한마디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훈련 강도는 높지만 제대로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원 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관장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을 믿어야 했다"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뤄진다' '소원을 이야기하고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끌려온다'는 말들이 힘이 돼 주었다. 지나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모두 내가 간절하게 원하니 길이 생겼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명한 체육관 관장,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였다"고 말했다. 당장 보기 좋고 돈이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즐겁지 않으면 힘들고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관장이 들려준 전역 후 창업 성공 비결은 원칙 고수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었다. 늘 그렇듯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다.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 G

글·강선임 객원기자

지난 8월 30일 미얀마 양곤에서 문을 연 새마을 복합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완공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곳 복합센터는 새마을운동의 현지 확산을 위해 외국에 최초로 설치된 종합시설이다.

개도국들, 한국식 발전모델에 '러브콜'

미얀마에 세계 첫 새마을 복합센터 세워… UNDP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양해각서 체결도

지난 6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난중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개발도상국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식 발전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가 2009년부터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노력이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유엔도 개도국 발전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터 의료 지원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세계 최초의 새마을 복합센터가 지난 8월 30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문을 열었다.

새마을 복합센터는 새마을운동의 현지 확산을 위해 외국에 최초로 설치된 종합시설로, 미얀마의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강당·교육장 등 기본적인 시설과 농기계 보관·수리 센터, 보건의료 시설이 함께 구비되어 있다.

이 센터는 지난해 10월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으로 착공해 10개월여 만에 완성됐다. 안전행정부에서 건물 신축과 새마을문고를,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보건 프로그램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술과 농기계 제공을, 미얀마 협동조합부에서 소액대출 사업을 분담했다.

준공식에는 양국 주무부처(미얀마 협동조합부,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장관, 마을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완공식 축사를 통해 "친구의 나라 대한민국의 작은 성의로 시작되고 주민들의 땀과 꿈으로 완공된 새마을 복합센터를 미얀마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라며, "한국은 미얀마의 친구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복합센터 완공식에 앞서 미얀마 협동조합부 장관과 양국의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새마을운동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관련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것으로, 새마을협력관·봉사단 파견 및 시범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추진 자율조직 결성,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는 정부가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따른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몽골,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13개국(32개 마을, 지난 6월 기준) 가운데 하나다.

1970년대 한국 근대화와 농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은 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이전부터 있어 왔다.

몽골은 2004년 11월 현지 새마을회 법인을 설립하고 22개 도 전역에 지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06년부터 신농촌 건설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것도 새마을운동이었다. 베트남의 취약지역 종합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도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전문성과 권위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우선 '국제 새마을지도자 자격제'를 운영해 해외에서 활동하게 될 새마을운동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해외파견 인력들 전문성 갖도록 단계적 자격 부여

그간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해외파견 인력(협력관·지도관, 봉사자) 대상 교육은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지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새마을학회 등과 함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단계별 자격(1~3급)을 부여해 2014년 하반기부터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 취득자가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매년 개최해 개도국 현지 마을지도자·공무원·협력관 등이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 새마을 지도자대회'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해 전 세계 개도국의 효과적인 빈곤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행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추진 경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외교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레베카 그린스펀 UNDP 부총재와 '한·UNDP 새마을운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UNDP의 전문가들은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로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개발도상국 3~4곳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추진 전략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UNDP와의 새마을운동 관련 MOU 체결은 개도국 농촌개발 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개도국들의 지원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새마을운동이 유엔 기구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 국민이 참여해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와 국가 발전을 이뤄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새마을의 날(4월 22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 날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전국지방장관회의를 통해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날이다.

글·박경아 기자

10월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우간다 정부의 농업 담당관들이 귀국 후 실천계획에 관해 토의하고 있다.

"한국의 번영 비결 따르면 우리도 바뀔 것"

우간다 연수생 15명 18일간 매일 아침 6시~밤 9시 강행군 열정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크게 현지 사업과 초청 연수사업으로 나뉜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실시하는 초청 연수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수리남, 도미니카, 온두라스 등 36개국, 930명이 참여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도 협력해 '한국형 ODA'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의 한 강의실. 조용하고 진지한 가운데 우간다에서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 담당관 15명이 양경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부원장의 '새마을교육의 이론과 실제'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이들 연수생들은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18일간 '2013 우간다 농민 소득증진 정책과정'이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들은 산업시찰을 하거나 농가 등을 방문하기 위해 지방 도시에서 숙박하는 3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강의를 듣거나 현장 견학을 나가고, 저녁식사 후에도 거의 매일 저녁 9시까지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접목해 어떤 사업을 펼칠지 구상하고 발표하는 조별 토론에 참여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홍혜원 국제교육부장은 "이번에 연수에 참여한 분들은 강의 시간 30분 전부터 강의실에 미리 와서 기다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열성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난해부터 맡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앙 동부지역에 위치한 우간다는 동쪽으로 케냐, 서쪽으로 콩고민주공화국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빅토리아 호수에 접해 있다.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린 우간다는 유엔이 정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만큼은 어느 나라 못지 않다. 지난 2010년 6월 우간다새마을회가 설립됐으며 비누공장, 제빵공장, 양어장 등 주민 소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키테무마을, 카테레케마을 등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모델로 삼아 자발적인 새마을운동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 중이던 지난 5월 31일 이곳 중앙연수원을 방문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중앙연수원을 둘러본 뒤 "과거 우간다에서도 잘살아 보자는 운동을 펼친 바 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지금 한국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결여되고, 지도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처럼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간다 정부에서 농업, 수산업, 수의검역, 곤충 등을 담당하는 이들 연수생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마을 지도자의 역할과 현장 활동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례 ▶새마을운동과 양성평등 ▶새마을운동과 지방행정 혁신 ▶농업용 관개수 개발 및 활용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퇴비 및 유기질 비료 제조법 ▶고소득 채소 재배법 및 농작물 병충해 방제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를 들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서하리마을,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견학하고 여주농업경영 전문학교를 찾아 제과제빵, 치즈가공 및 농기계 조작 실습 시간을 갖는 등 한국의 농·수·축산업 생산과 가공, 유통 현장을 찾았다. 또한 지방 도시를 방문해 중공업 시설,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 등을 둘러보고 한국문화 체험도 했다.

"연수 경험이 농업생산 증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 동쪽에 위치한 마이유게 지방 지역개발담당관 밀리 카양가(여·29) 씨는 "한국은 직접 눈으로 보니 대단히 발전한 나라"라며 "한국이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우간다에 가져간다면 우간다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우간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간다의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인 키테무마을 비누공장.

카양가 씨는 "전쟁을 경험한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다"면서 "이번 연수 경험이 우간다인의 수입 증대, 특히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 지역의 농업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우간다 정부 선임농업담당관 토니 킨삼브웨(33) 씨는 "예전에 일본으로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이번 한국에서의 연수 경험이 우간다에 적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수 오기 한 달 전 인터넷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왔다는 킨삼브웨 씨는 "특히 우간다 북부지방은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려 사정이 어렵다. 지역 재건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간 별 성과가 없었다"면서 "우간다로 돌아가면 특히 아고로 지역같이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해 볍씨를 공급하고 관개 시설을 만들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주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지역의 농업 관련 공직자들이 이번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사업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농업분야 집중연수를 받은 이들은 귀국 후 소득향상 정책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우간다인들의 자립 의지를 형성하는 데 동기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인터뷰

"개도국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 줘요"

"제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지난 5월 31일인데, 바로 다음날 열린 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500여 명의 지도자들과 2박3일을 함께하며 그분들의 열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지역 곳곳에 있는 200만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지금도 사회운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정성 들여 가꿔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새마을운동의 의미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보릿고개 극복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 발전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최근 새마을운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은데요.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일본이 주도해 온 원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 의지를 해치고 원조 의존성만 키웠기 때문이지요. 반면 새마을운동은 '자조' 정신을 강조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개발운동입니다. 주민 참여와 적은 투입 요소(마을당 시멘트 335포)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국민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자발적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개도국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 원조 효과 또는 개발 효과를 높이고, 그 나라의 전통과 생활 방식에 맞춰 추진하는 현지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복잡한 개발 이론이 아니라 성공 경험입니다. 마을이 바뀌고 주민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귀한 실증 사례이지요."

최근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빈곤 퇴치가 절대 과제였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의 시대적 소망이 투영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갈 때라고 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제2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더불어 잘살기 위한 공동체 운동으로 나눔·배려·봉사 정신에 충만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지요. 제2새마을운동의 역점 사업은 공동체 회복,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은 이념과 지역, 계층 및 세대 간 갈등을 동시에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소의 공동체 단위입니다. 1970년대 경험을 되살려 기존의 마을 중심 공동체 운동을 발전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마을 중심 공동체 운동은 어떻게 구현되는지요.

"주민총회 등 마을 회의를 활성화하고 마을 리더를 양성하며 마을 소재 종교단체, 기업, 자생단체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동체 운동(국민정신 함양), 이웃공동체 운동(나눔운동 활성화), 경제공동체 운동(창조경제 기여), 지구촌공동체 운동(새마을운동 해외 전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에 Y-SMU(Youth-SaeMaulUndong) 포럼이 만들어져 젊은 새마을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인데, 이를 더 끌어내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남들은 여행 갈 때 어려운 여건의 해외 봉사를 선택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들이 새마을운동 안에 있는 한 새마을운동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G

글·박경아 기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세종시 첫마을 한솔중학교 체육관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세종시 체육 동호회 현황

종목	명칭	특징	문의
테니스	첫마을 테니스클럽	조명시설 갖춰 밤 시간에도 운동 가능	cafe.naver.com/fvtc 010-6729-6739
축구	첫마을 FC	30대부터 60대까지 활동 연령층 다양	010-5011-9032
배드민턴	첫마을 배드민턴 클럽	초심자에 대한 별도 지도 가능	010-2440-3432
야구	한솔동 야구 동호회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이 감독으로 활동	010-9183-7446
족구	족구 동호회	금강의 맑은 공기 맡으며 운동	cafe.daum.net/jokgu-love 010-7403-4884
자전거	세자동(세종시 자전거 동호회)	주말에는 지역 원정 나서	010-3077-7172

※기타 동호회 정보는 세종시 생활체육회(044-862-2001)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끈끈한 정 나누는 '체육 동호회 천국'

축구·야구·테니스 등 동호회 활발… 새로 만난 이웃들 소통창구 역할

"이쪽으로, 이쪽으로." "슛, 슛~." 지난 5일 이른 아침 세종시 한솔중학교 뒤편 인조잔디 구장.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을 가르는 힘찬 목소리들이 운동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동네 조기 축구 클럽의 토요 정기 모임은 생동감 그 자체다.

세종시의 첫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운동 모임이 지역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새롭게 도시가 조성되는 탓에 아파트 주변의 풍광은 여전히 어설픈 구석이 적지 않지만, 체육 동호회 덕분에 주민들의 융화 속도는 남다르다.

첫마을에는 최소 6~7개의 각종 체육 동호회가 있다. 이들 동호회에는 각각 수십 명, 많게는 200명 안팎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는 12월이면 5천명이 넘는 정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삶의 터전을 세종시로 옮긴다. 이즈음이면 세종시의 체육 동호회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 동호회는 새롭게 조성되는 커뮤니티의 필수 요소이다. 운동이 가져다 주는 건강과 재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소통 창구이자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의 동호회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자녀 교육은 물론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정보를 동호회를 통해 얻기도 한다. 첫마을 중심으로 주요 체육 동호회의 현황을 알아본다.

족구도 전용 '명품 코트'에서 즐겨

세종 첫마을 테니스클럽은 수질복원센터 내의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은 6면의 클레이 코트로 돼 있다. 조명 시설이 있어 밤 시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배수가 잘되는 덕에 바닥이 흙이지만 비가 그친 뒤 반나절 정도만 지나면 이용할 수 있다. 첫마을 테니스 클럽의 회원 숫자는 70명 정도이다.

운동 특성상 남녀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한 덕분에 여성 회원들도 적지 않다. 곽영길 총무이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테니스에 취미를 붙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클럽 차원에서 개발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마을 FC(회장 이상만)의 등록 회원은 200명 안팎으로 세종시 개발 지역의 체육 동호회 가운데 가장 많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동호회,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동호회'가 첫마을 FC의 슬로건이다. 한솔중학교 옆의 인조잔디 구장을 주 운동장으로 사용한다. 평일에는 화·수·금요일 오전 6시에 모인다. 정기 시합 모임은 주로 토요일 오전 7시에 갖는다.

회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평소 A·B·C 3개 조로 나눠 자체 '삼국지 리그'도 벌이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외부 축구 동호회 팀을 초청하여 경기를 하고 있다. 올 초에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한솔동 주민센터에 도서구입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토요일에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주축은 30~40대이지만 60대도 있을 정도로 폭이 넓다.

첫마을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여러 개 있다. 아파트 단지와 인근 도시 공원에 야외 코트가 산재해 있고, 활용 가능한 실내 코트도 적지 않다. 첫마을 배드민턴 클럽은 참샘초등학교와 한솔중학교 두 곳의 체육관을 빌려 쓰고 있다. 참샘초등학교 체육관은 저녁반, 한솔중학교는 새벽반이 주로 이용한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에도 운동을 한다. 실내 체육관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한솔동 야구 동호회는 세종시 개발 지역 최초의 야구 동호인 모임이다. 등록 회원은 110명 정도이며, 자주 활동하는 사람은 60명가량이다. 한솔동 야구 동호회의 자랑은 프로야구 출신 안상국(삼성 라이온즈), 김기성(한화 이글스) 회원 등이 감독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기술 전수 등 야구 기량을 갈고 닦기에 남다른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찬 동호회장은 "유소년과 여성 동호인을 위한 야구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족구 동호회는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전용 코트를 갖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자랑이다. 윤성일 단장은 "세종시청의 배려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 코트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강변 한두리 대교 아래 위치한 3면의 코트가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가로 약 45미터, 세로 55미터 정도로 일류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큰 규모다. 정기 운동시간은 화·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이며 금강의 맑은 공기를 쐬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여럿이 같이 타면 혼자 탈 때와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자전거 타기다. '세자동(세종시 자전거 동호회)'은 약 35명의 남녀 회원들이 매월 둘째·넷째 주말, 인근 지역 원정에 나선다. 남성 회원들은 산악 자전거로 임도 같은 곳을 찾아다닐 때가 많고, 여성 회원들은 포장 도로를 탈 때가 많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20~60대로 다양하다. G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책 한 권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허병두 숭문고 교사, 독서 교육과 함께 ‘저작권 기부 운동’도 함께 펼쳐

허병두 숭문고 교사는 25년이 넘도록 독서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독서 교육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숭문고등학교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2만여 권의 책이 비치된 ‘학교 도서관’이다. 8개의 교실을 합친 널찍한 공간에는 문학, 역사, 사회과학 등 각 분야 장서들이 비치돼 있다. 많은 고등학교들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과 비교하면 숭문고 도서관은 잘 운영되는 편이다.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숭문고 도서관은 ‘창고’에 불과했다. 장서 수가 많지 않았으며 공간도 비좁았다. 하지만 25년여 동안 도서관에 애착을 갖고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은 이가 있다. 바로 숭문고 허병두(52) 국어교사다. 그가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교 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학교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학교에 잘 적응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학교에 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많은 선후배들이 도와줘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허 교사는 단지 도서관을 넓히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책’을 쓰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학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찾아 책을 쓰는 수업을 한 학기에 걸쳐 하는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꿈’을 찾은 학생들도 있었다.

“한 제자가 정기룡 장군(조선 중기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거창, 금산 싸움에서 공을 세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책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정기룡 장군에 대해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당시 이 제자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신만의 책을 쓰면서 전문가를 인터뷰하다가 자신이 역사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사학과에 다니고 있고, 논문도 쓸 계획이랍니다. 꿈이 없어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한 권의 책을 발견하면 그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줘요. 많은 아이들이 책을 쓰고 읽으며 꿈을 찾아요.”

독서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1998년부터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모임은 허 교사처럼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현직 중·고교 국어교사와 사서교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현재 이 모임에는 30여 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책따세’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청소년들을 위해 추천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몇몇 기관에서 정한 일률적인 추천도서 목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서목록을 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교사 각자가 생각하는 도서를 제안하면 ‘만장일치’의 과정을 거친 도서를 목록에 올렸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목록에서 제외했어요.”

회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결과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추천도서 목록이 발표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횟수는 30여 차례이며 추천도서는 연평균 60여 권에 달한다.

허 교사를 비롯한 ‘책따세’ 회원들은 ‘카피 기프트(저작권 기부 운동)’에 관심을 쏟고 있다. 허 교사가 저작권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 제자 때문이었다.

“저작권을 공익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제자 중에 성실하고 똘똘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와서 ‘선생님, 이 목록에 있는 책들 중에 한 권만 사야 한다면 뭘 사는 게 좋을까요?’라고 묻더라고요. 제자는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책들을 다 읽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한 권만 골라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저희가 목록을 만든 까닭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변화되길 바랐기 때문인데, 책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은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목록을 제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허 교사는 이후부터 ‘저작권 기부 운동’을 해 왔다. 해당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통해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은 ‘보호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도 중요해요. 저작권을 공익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까지 ‘바람의 딸’로 유명한 한비야 긴급구호팀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작가들이 ‘저작권 기부 운동’에 뜻을 같이해 줘 현재까지 44권의 전자책이 나왔다. 허 교사는 “많은 저자들이 흔쾌히 동의해 줬다”며 “그들이 기부해 준 덕에 청소년들, 해외 동포들이 좋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 기부 운동은 저자의 책이 오로지 자신의 머리, 가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 사회의 지적 전통과 사회 분위기 덕에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 중 한 권 이상은 우리 사회의 공적 재산으로 남겨두자는 거죠.”

2012년 6월 17일, 허 교사와 제자들은 국내 최초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집필한 책의 저작권을 기증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책은 〈낙서열전(낙 없고 서럽고 열 받는 전국의 중·고딩을 위한 낙서책)〉 1, 2권이다. 기증된 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의 이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따세’는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나눔 확산 및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저작권 기부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자문 등의 지원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에 필요한 업무 교류 및 협력에 합의했다.

현재 허 교사를 비롯한 ‘책따세’ 회원들은 ‘저작권 기부 카페’를 만드는 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저작권 기부 카페’는 ‘북 카페’처럼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비치하고, 저작권을 기부한 작가들이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강연이나 모임 등을 마련하는 공간이다.

“앞으로도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따세, 저작권 기부 운동 등을 통한 지식 나눔 활동도 함께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신의 지식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G

글 · 김혜민 기자

곤드레의 '화려한 귀환'

중앙포토

음식도 때를 잘 만나야 출세를 한다. 어려웠던 시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던 구황 식품이 먹을 것이 넘쳐나고 비만을 걱정하는 세상에서는 건강다이어트 식으로 각광받기도 하니 말이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구황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지만, 굶주린 백성의 구제는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에게 큰 과제였다. 세종대왕은 일찍이 가뭄과 홍수 같은 재난 때와 춘궁기의 기아 대책을 기록한 책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을 간행한 바 있다.

그 이후에 출간된 〈구황절요(救荒切要)〉, 〈구황촬요(救荒撮要)〉, 〈구황보유방(救荒補遺方)〉, 〈구황벽온방(救荒辟瘟方)〉 등도 기근이 심할 때 대용 식품을 구하고 요리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문헌들에는 소나무 껍질, 느릅나무 껍질, 솔잎, 메밀꽃, 콩깍지, 토란, 마, 도토리, 삽주 뿌리, 소루쟁이 등 수백 종의 구황 식물이 수록되어 있다.

곤드레는 그런 구황식물 중에서 대표라고 할 만한 산나물이다. 강원도의 향토음식 곤드레밥은 심심산골인 정선과 그 인근에 살던 화전민들이 보릿고개 때 음식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해 먹던 음식이다. 곤드레는 표준명이 '고려엉겅퀴'인데 '고려가시나물', '구멍'이라고도 한다. 산자락의 풀밭에서 곤드레 잎사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사람의 몸짓과 흡사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 외에 보릿고개 때 기근에 지친 사람들이 곤드레를 뜯어다 끼니를 해결하고는 식곤증을 못 이겨 축 늘어진 모습에 빗대 그렇게 불렀다는 주장도 있다. "한 치 뒷산의 곤드레 딱죽이 임의 맛만 같다면/ 올 같은 흉년에도 봄 살아나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라는 정선 아라리의 한 구절만 봐도, 곤드레가 어려웠던 시절 산간 지방의 굶주린 민초들과 애환을 같이한 식재료임을 알 수 있다.

구황 식품에도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일단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야 하며 먹기가 거북스러워도 안 된다. 곤드레는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춘 데다 씹는 맛까지 있어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요즘의 윤기 흐르는 쌀로 짓는 곤드레밥은 옛날의 그 곤드레밥이 아니다. 말이 밥이지 쌀은 구경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 옥수수나 메밀을 조금 섞어서 끓여 먹었다. 너무 깔끄러워서 넘기기가 힘들면 감자를 넣고 으깨서 겨우 먹었다.

그 시절의 구황 음식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흉년에는 백성이 나물로 양식을 대신하는 까닭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소금 값이 비싸지므로 미리 장을 넉넉히 담그고 다시마, 마른 새우를 미리 준비하여 두라"고 했을 정도다.

곤드레는 탄수화물,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의 함유량이 풍부하다.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곤드레를 지혈, 소염, 이뇨작용, 해열, 부종 치료 등을 위해 약으로 썼고 부인병에도 효험이 있다고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도 엉겅퀴에 대해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 어혈을 풀리게 하고 출혈을 멎게 하며 옹종과 옴, 버짐을 낫게 한다. 여자의 적백대하를 낫게 하고 혈을 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곤드레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연산 무공해 식품으로 웰빙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는 식자재가 아닐 수 없다. 천대받던 구황 식품이 기호 음식으로 신분이 상승했으니 음식 팔자도 시간 문제다. 곤드레밥은 본고장 정선의 '싸리골식당'과 '동박골'이 유명하며 서울에서는 청계산 입구의 '곤드레집'과 인사동의 '정선할매 곤드레밥'에서 맛볼 수 있다. G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전화기는 소중히 취급합시다!

1969년 10월 11일 경향신문에 실린 '전화기는 소중히 취급합시다!'라는 제목의 체신부 광고.

지금 우리나라는 스마트 열풍에 따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기폭제는 스마트 폰인데, 올 10월 기준으로 스마트 폰 사용자 수는 3,7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 열풍은 산업과 사회, 문화의 흐름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고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 아득하여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화 거는 방법을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자.

체신부(이후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개편)의 광고 '전화 거는 방법' 편(경향신문 1969년 10월 11일)을 보자. "전화기는 소중히 취급합시다!"라는 헤드라인 아래 전화 거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하는데 "0번도 번호"라며 "0020번에 걸 때 0번을 돌려야" 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가입 전화는 다이얼을 손고리까지 정확하게 돌리고 나서 손가락을 뺀 다음, 수화기를 들고 발신음을 들은 뒤, 상대의 호출음이 들리면 통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상대의 화중음(상대가 통화 중임을 알리는 소리)이 들리면 수화기를 놓고 1~2분 기다린 후 다시 걸고, 상대가 나오면 통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중전화는 수화기를 든 다음 새 주화 5원짜리를 넣고, 발신음이 들리면 다이얼을 손고리까지 정확하게 돌리고 손가락을 뺀 다음, 상대의 호출음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수화기를 놓으면 넣은 돈이 나오는데, 상대의 통화음이 들리면 상대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 광고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각각의 상황을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전화 거는 순서가 설명이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지금과는 다르게 구성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광고 지면의 중앙 아래쪽에 '부탁의 말씀'이라며 강조 부분을 배치했다는 사실이다. "전화기는 소중히 관수(간수)하여 주십시오." "마음대로 전화기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두지 마십시오." "전화는 다른 사람 집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00~11:30, 15:00~17:00, 과히 급하지 않은 용무의 전화는 이 '러시아워'를 피하여 거시면 보다 빠르고 쉽게 거실 수 있으며 이 시간은 꼭 걸어야 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다."

마음대로 전화기에 손을 대야(touch) 스마트 폰이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고, 통화의 러시 아워가 따로 없이 24시간 내내 통화할 수 있고,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보편적인 소통 도구가 되고 있는 요즘에 비춰보면, '부탁의 말씀'에서 강조한 다섯 가지 사항들이 마치 오래 전 옛날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불과 45년 전 일이다. G

글 · 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일본인이 쓴 한글의 과학성

〈한글의 탄생〉

노마 히데키 지음
돌베개 · 1만5천원

"한글 창제는 지적 혁명이며 충격이었다."
저자 노마 히데키는 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한다. 도쿄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수 출신인 그는 1970년대에 독학으로 공부하던 중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를 계기로 서른의 나이에 도쿄외국어대학교 조선어학과에 입학해 한국어 학자가 됐다.

〈한글의 탄생〉은 언어 · 문자에 대한 물음을 한글에 대한 통찰로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한글 이전의 문자 생활, 한글의 창제 과정, 마침내 한글이 한반도에서 '지(知)'의 판도를 뒤흔든 과정, 나아가 그 미적 형태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그 결과 일본에서 학자들의 호평을 받았음은 물론, 한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독자들까지 매료시키며 3만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마이니치신문사와 사단법인 아시아조사회가 주관하는 2010년 아시아 · 태평양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글학회가 수여하는 주시경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시경상을 외국인이 받은 건 그가 처음이었다.

당시 조선의 언어 환경에서 한글 창제는 파격이었다. 한자를 읽고 우리말 순서에 맞게 뜻을 새기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글과 말이 다름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세종과 집현전 학파가 글과 말을 일치시키겠다며 한글 창제를 추진한 것이다.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세종과 집현전 학파는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에 대해 저자는 한글이 '세계 문자사의 기적'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면서 세종과 집현전 학파들이 얼마나 무서울 만큼의 이해력과 분석력, 창조력을 통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는지 조목조목 밝힌다. 한자만으로 글을 써왔던 15세기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에서, 글을 조금이라도 쉽게 읽기 위해 궁리한 묘안들도 소개한다. 저자는 "천 년의 시간 동안 한자 · 한문에 가려졌던 이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물과 같이 넘쳐 솟아나는 말"이라며 한글을 치켜세운다.

나아가 세계 문자사적으로 한글의 위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세종과 당시 학자들이 음운학, 현대 언어학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기에 한글 창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책은 이렇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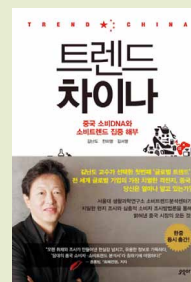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귓가에 들려오는 자연의 말소리로부터 '음'의 단위를 추출하고, 이들을 각각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한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특히 한글의 창제 과정을 과거에 벌어진 일의 서술이라기보다는 마치 지금 이 순간 독자와 함께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듯 박진감 있게 인도한다. 훈민정음 창제 570주년이자 한글날이 23년만에 공휴일로 부활한 올해, 세계 속 한글의 위상을 새기기 충분한 책이다. G

글 · 남형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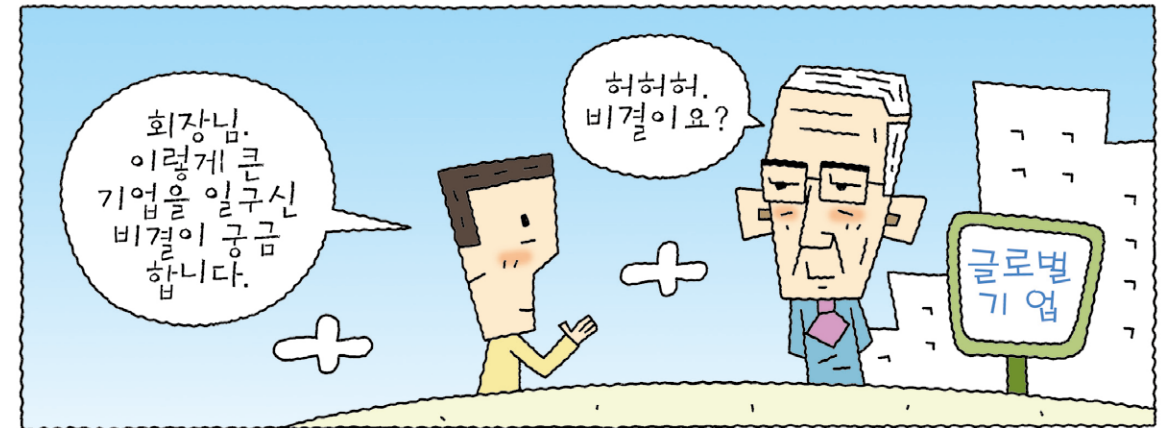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엘리자베스 던, 마이클 노튼 지음
알키 · 1만3천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을 제안한 책이다. '체험을 구매하라', '특별하게 만들어라', '시간을 구매하라',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소비하라',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 등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지출 원칙 다섯 가지를 차례로 소개한다. 심리학 교수인 저자의 수많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

트렌드 차이나
김난도, 전미영, 김서영 지음
오우아 · 1만6천원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중국 소비시장 변화와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예리하게 포착한 〈트렌드 차이나〉.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생생한 소비생활에 집중하여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를 이론적 틀과 시각에 입각해 분석했다. 중국의 소비자는 무엇에 열광하고 어떻게 소비하는지, 전체적인 소비시장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정리했다.

세 가지 은혜

글과 그림 · 최영순

바람이 강하게 불 때야말로 연을 날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 창업주)

가을이라 더 애잔한 피리 소리

〈시월에 듣는 피리〉

가을을 맞아 '피리'를 주제로 한 공연이 열린다. 10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피리의 대가 정재국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신비로운 피리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정재국 명인은 피리 소리를 '새벽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 소리'에 비유한 바 있다. "피리 소리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뽑아내는 소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피리 소리는 '새벽에 황계(黃鷄)가 홰에 올라 목청을 높여 우는 소리'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정재국 명인은 피리 협주곡 〈자진한잎〉을 선보인다. 이 곡은 1972년 작곡된 곡으로 피리의 꿋꿋하고 남성적인 아름다움이 잘 표현돼 있다. 전통 음악 〈자진한잎〉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 명인 정재국과 관현악 앙상블이 함께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가을의 정취를 한껏 살린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관현악 〈가을의 기억〉은 가을의 추억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진 곡이다. 백규진 작곡가는 "누구에게나 잊혀져 가는 가을이 있다"며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보며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게 되는 감정을 곡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경기·강원·영남 일대의 산간 지역에서 불리던 토속 농요가락인 '메나리조'를 주제로 한 피리 협주곡부터 불교 성악곡을 기초로 만들어진 피리 중주 '상령산'까지 다양한 장르의 피리 연주가 마련됐다. 공연 관계자는 "시원하고 아련한 피리 소리를 통해 마법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혜민 기자

세종문화회관

피리의 육중하면서도 잔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일시 10월 18일 오후 7시30분
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의 ☎02-399-1188

공연

축언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공동 제작한 연극 '축언'이 10월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을 주제로 하며 한·중·일 3국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공연의 일부는 대사 없이 악기 연주와 춤으로 진행된다. 한·중·일의 미래와 예술가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갑자기 밀어닥친 대지진, 쓰나미, 그리고 그 이후의 어둠과 고요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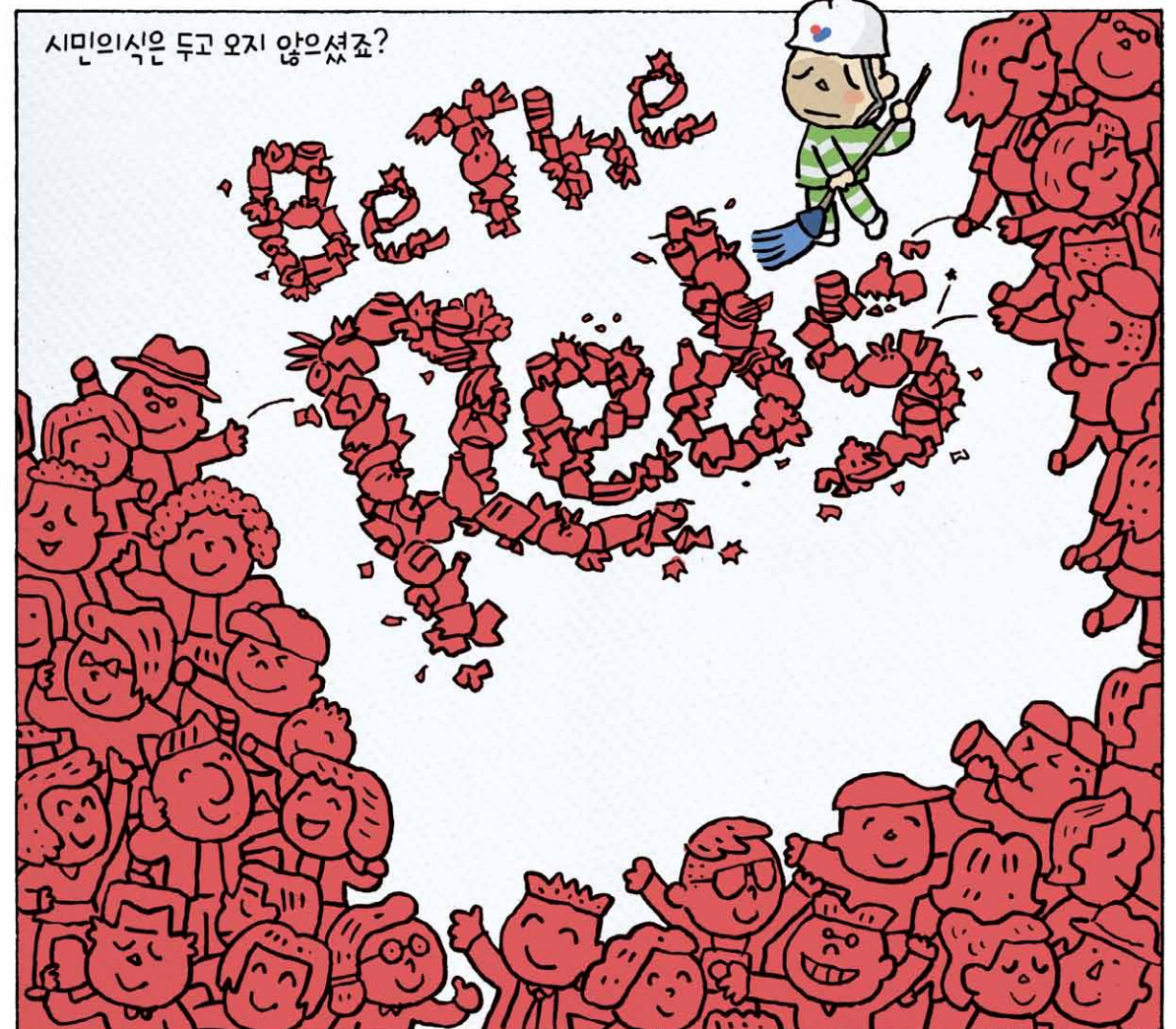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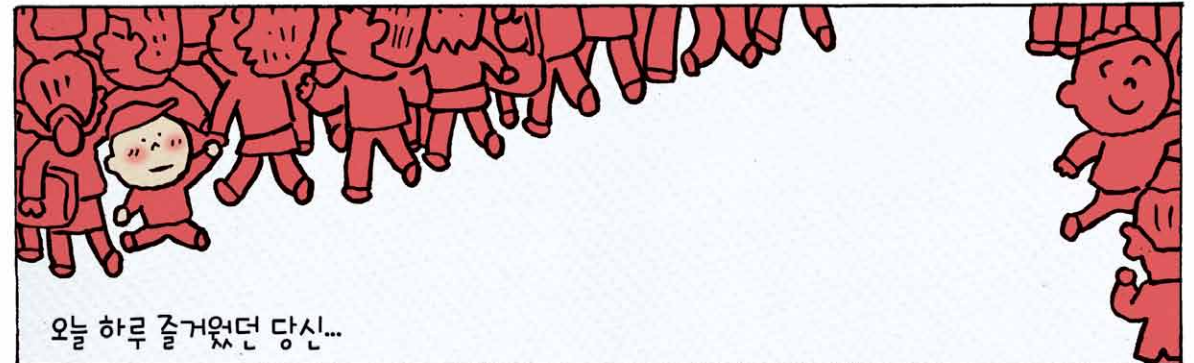
기간 10월 19~20일
장소 대전 서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문의 ☎042-270-8333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은 창작공연으로 출발해 약 30개월 동안 11만여 관객이 본 작품이다. '100석 소극장의 기적'으로 불렸던 이 연극이 10월 구리아트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30년째 대를 이어온 오아시스세탁소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소시민의 삶을 해학, 웃음, 그리고 감동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객들은 수백 벌의 의상들이 춤을 추고, 비누거품이 뒤덮는 역동적인 무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시 10월 16~19일
장소 경기 구리 구리아트홀 유채꽃소극장
문의 ☎031-550-8800~1

우리가 버린건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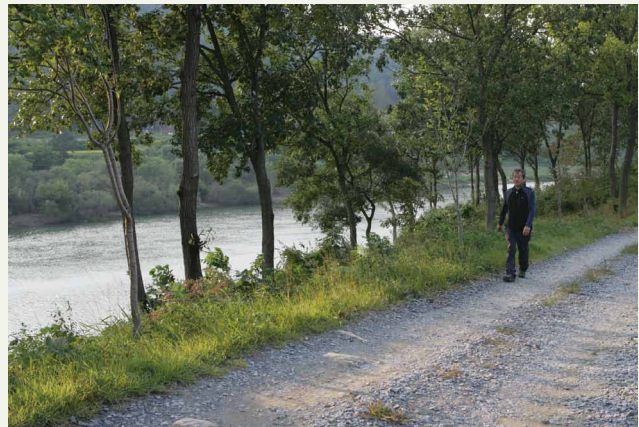
‘늦가을 같은’ 여행

시골로 이사 와 처음 생긴 재미는 식도락이다. 시골이라 값싸고, 게다가 전라도라 맛 또한 일품이었다. 장터 국수집, 이름 없는 중국집, 아무도 눈여겨봐 주지 않았던 시골 맛집 찾기에 흠뻑 빠져 있던 중 집 근처에서 다슬기집을 발견했다. 언제 가도 한적해서 솜씨만큼 인물도 좋은 주인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김장 김치도 얻어 먹곤 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휴일이면 2층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이 들어차는 바람에 손님 접대 아니고는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 집만이 아니다. 오가는 차 드물어 섬진강 기웃거리며 한가롭게 다니던 길도 휴일이면 외지 차량들로 속도를 내기 힘들다. 산수유 피고 매화 피고 벚꽃 피는 주말이면 아예 차 끌고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다. 누구나 여행을 즐기는 좋은 세상이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산수 수려한 곳에 살고 있음에 자족하면 그만일 테지만 어쩐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에도 해외 여행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해외 여행을 위한 적금을 들고 그도 준비되지 않았으면 빚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물론 빚이라도 내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여행은 설레는 일이다. 여행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인 동시에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 하릴없이 낯선 도시의 뒷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센느 강변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홀짝거리며 무심히 노을을 바라보는, 그 목적 없는 쉼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며, 부산한 일상으로부터의 거리는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게 만든다. 휴식과 반추야말로 여행의 진정한 목적이다.

언젠가 4박5일 일정의 중국 여강(麗江·Lijiang) 단체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관광은 물론이요 쇼핑에 이르기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는 일정이었다. 그 후로 다시는 단체 여행을 하지 않는다.

나 사는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한 유명 관광지를 돌고, 역시 인터넷에서 검색한 맛집을 순방하고, 어디를 가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내가 이 유명한 곳에 왔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라도 남기듯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여행지를 고를 때도 물론 인터넷 검색이 필수다. 유명한 곳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여행이 과연 휴식이 될 수 있을까? 게다가 이런 여행에 의외의 순간이 있을 리 없다.

전남사람들

섬진강변

전날 내린 눈 때문에 차가 거북이 운행을 하는 바람에 밤늦게야 도착한 부석사의 고즈넉한 풍경은 무려 30년이 지났음에도 잊히지 않는 내 소중한 기억 중 하나다. 그날 나는 아무도 없는 무량수전 뜰 앞에 앉아 소백산맥 위로 덩그렇게 솟아오른 보름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어느 순간 미(美)라는 것의 한 끄트머리를 붙잡은 듯 가슴이 설렜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과 맞닥뜨린 순간 나도 모르던 내 안의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이 또한 여행의 묘미다. 그러려면 계획이 없을수록 좋다. 계획이 없어야 기대가 없고, 그래야 문득 무엇인가와 마주할 테니.

시월이다. 머지않아 지리산은 초록을 잃고 제각각 다른 빛으로 물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또 단풍잎만큼이나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다. 그중 하릴없는 휴식 속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G

글·정지아(소설가)